

890억 보안 투자에도 내부자 위협에 무방비

1 개인정보 잔혹사

〈上〉 쿠팡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의 '890억 보안 투자'가 내부자의 한 번의 키 입력에 무너졌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 동안 새어 나가는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이번 초유의 사태는, 쿠팡의 보안 체계가 외부 해커가 아니라 '집 안의 적'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음을 드러냈다.

2일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그동안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개인정보노출'이라는 표현 대신 "유출이 맞다"고 인정하며 한국 법인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12면〉

3370만 개인정보 5개월 노출 과도한 권한·모니터링 부재 CISO·CPO 분리에도 역부족 다국적 구조 속 통제한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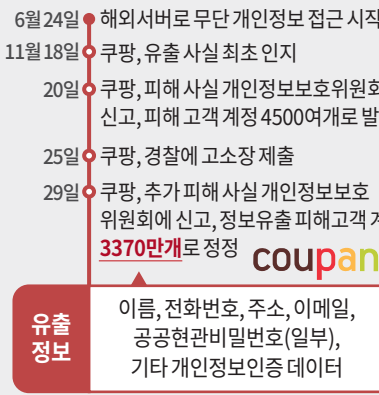
박 대표는 유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중국인 직원이 용의자로 지목된 점에 대해 그는 "해당 직원은 단순 인증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라며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는 만큼 단순히 복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일부 유출된 사실을 시인했다. 박 대표는 이를 안내 문자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를 받아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가 충격을 주는 핵심 이유는 쿠팡이 그동안 정보보호 조직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쿠팡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해왔다.

통상적으로 기업 내에서 CISO는 해킹 방어 등 '기술적 보안'을 총괄하고, CPO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 '관리적·법적 보안'을 담당한다. 두 직책을 분리하는 것은 기술적 방어와 법적 감시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실제로 쿠팡은 올해 정보보호 부문에만 890억 원을 투자하

쿠팡 정보유출 주요일지



며 삼성전자와 KT에 이어 국내 3위 규모의 보안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칸막이식 전문화'와 막대한 자금도 내부자의 일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내부 직원이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서명된 액세스 토큰 및 암호키 악용)을 이용해 정상적인 경로로 위장하여 정보를 빼돌린 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CISO와 CPO의 분리 운영만으로는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을 막기에 역부족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CISO가 구축한 방화벽은 외부 침입을 막는 데는 강력하지만, '정상적인 열쇠(인증 토큰)'를 가진 내부 직원의 접근은 공격으로 식별하지 못한다. CPO가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한 실제 시스템단에서 접근 권한 관리가 느슨하다면 서류상의 약속에 불과해진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개발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접근 권한 ▲민감 정보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중요 암호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치명적인 '내부 통제(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3370만명의 정보가 5개월간 빠져나가는 동안 이를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이 외부의 적만 경계했을 뿐 내부의 구멍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두고 "돈이 목적이었다면 즉시 협박했을 텐데, 5개월 뒤 피해자들에게 직접 알린 점으로 미루어 회사에 양심을 품은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쿠팡의 상충부위사결정권자가 대다수 외국인인 구조적 특성상, 수사가 한국 직원 선에서의 '꼬리 자르기'로 끝날 우려가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 트라이폴드 내구성·성능 다 잡았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공개

두께 3.9mm·아머 플렉스힌지 탑재 20만회 폴딩 테스트로 내구성 검증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얇은 3.9mm 두께를 구현했습니다. 단순히 얇은 것이 아니라 내구성, 성능, 울트라 카메라 경험까지 확보하는 최적의 하드웨어 레이어아웃을 채택했습니다.”

강민석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부사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열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미디어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제품에 지난 2019년 선보인 ‘갤럭시 폴드’부터 축적해 온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역량과 제조기술이 집약됐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갤럭시 Z 폴드7’과 같은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 후면은 최대 2억 화소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배터리는 5600mAh 용량으로 역대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중 가장 크며 최대 45W 초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트라이폴드폰에 꾸준히 제기돼 온 내



2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미디어공개 행사에서 3단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구성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트라이폴딩 구조에 최적화된 ‘아머 플렉스힌지’를 탑재했으며 얇고 내구성이 뛰어난 티타늄 소재 힌지를 적용했다.

강 부사장은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20만회 이상의 폴딩 테스트를 통해서 완벽한 내구성, 100번씩 접는 경우 5년 동안 확보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했다”라며 “네트워크 환경,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도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다양한 환경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거쳤다”고 했다.

화웨이 등 중국 경쟁사들이 앞서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한 상황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앞세워 제품 차별화를 이루겠

다고 강조했다.

강 부사장은 “단순히 두 번 접는 하드웨어를 넘어 대화면에서도 완벽한 사용자 경험(UX)과 소프트웨어 사용성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폴더블폰 시장 성장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폴더블 시장은 계속 커져 나갈 것이며 Z 트라이폴드가 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오는 12일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이후 중국,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BYD 이어 지커 상륙… 수입 전기차 지각변동

中 전기차 국내시장 확장세 샤오펑도 한국 진출 준비중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이 미국과 유럽의 양강 구도에서 중국 브랜드의 합류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인 중국 BYD가 가성비 전략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에 안착한 가운데 중국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까지 국내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품 경험을 늘린다면 브랜드 신뢰를 쌓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커는 이날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지커 타워에서 에이치모빌리티ZK, 아이언EV, KCC모빌리티, ZK모빌리티 4개 파트너사와 ‘딜러 계약체결식’을 진행하고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지커는 이번 딜러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딜러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지커와 계약을 맺은 파트너사들은 수십 년간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를 운영해 온 딜러사다. 지커는 이들과 협력을 통해 국내 소비자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천 위 지커 부사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에 안착한 가운데 중국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까지 국내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품 경험을 늘린다면 브랜드 신뢰를 쌓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현기 지커 코리아 대표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운영한 노하우를 갖춘 파트너사와 딜러 계약을 맺은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커는 지난 2021년 브랜드 론칭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58만여대의 차량을 인도하며 글로벌 프리미엄 전동화 브랜드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국내에 공식 진출한 BYD 역

시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씨라이언7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BYD코리아의 1~10월 누적 판매량은 3791대로, 수입 전기차 부문 4위를 기록했다.

이는 BMW(4814대), 아우디(4222대), 테슬라에 이어 네 번째다. 업계에서는 연내 국내 판매 5000대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YD코리아는 올해 선보인 아토3·셀·씨라이언7의 시장 안착에 집중하며, 내년에도 매년 1종 이상의 신차 출시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국어판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은 지난 6월 ‘엑스펑모터코리아’라는 이름의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샤오펑이 P7을 첫 주력 모델로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7은 ‘투링’ ADAS 칩을 탑재해 자율주행 기능과 스마트 운전 지원 기능 제공한다. 샤오펑은 자체 자율주행 기술(XNGP)을 앞세워 테슬라 FSD와의 경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추경호 구속영장, 야당탄압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 /사진 뉴시스

▲‘국힘 최다선’ 조경태 “80년 광주정신, 대한민국을 구했다”

▲안규백 “내란 청산 ‘적당주의’ 설 자리 없을 것…과오 직시 않고 軍 명예회복 불가능”

▲이 대통령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만들 것…군사적 긴장완화 선제적으로 조치”

▲정청래, 주한美대사대리 접견… “남북 간 다리 돼 달라”

▲국무조정실 “공무집행방해 혐의받은 직원 직위 해제 예정”

日 금리인상 신호에 ‘엔 캐리 청산’ 우려… 금융시장 ‘비상등’

美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고
日 인상 무게… 금리격차 좁혀

한은, 엔 캐리 잔액 506.6조엔
청산가능 규모 32.7조엔 파악

빌린 일본 엔화를 갚기 위해 미국 달러 자산을 매각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신호가 엇갈리면서다.

미국 기준 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톨이 예측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4%를 가리킨다. 블랑케 사인 자산관리 회사 최고투자책임자 로버트 사인은 블룸버그에 “시장은 현재 소화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케빈 해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차기 연준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가까워졌다는 게 분명해지자 시장이 정말 반겼다”며 “시장은 연준에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인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을 지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금리 인상 쪽으로 ‘깜빡이’를 켜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1일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의 관세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낮아지고 있고 기업의 수익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라며 “올해 최저 임금도 역대 최고로 오르는 등 임금 인상도 확산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에선 BOJ가 이달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트럼프 발 관세전쟁의 충격을 우려해 올해 1월 이후 중단했던 ‘인상 사이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신호도 감지된다.

미국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제 금리(수익률)의 격차가 좁혀진 것이 대표적이다. 금리 차이가 줄면 엔화를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진다. 지난 1일 일본 10년물 국제 금리는 1.865%를 기록했다. 한때 연 1.875%까지 상승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5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기준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2년 만기 국제 금리는 연 1.020%를 기록하며 17년 만에 연 1%를 넘어섰다.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는 연초 연 4.

8% 코앞까지 상승했다가 1일 연 4.08%로 밀려났다. 그 결과 올해 초 3.5%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미국과 일본과의 국제 금리 격차는 2%포인트 초반대로 좁혀졌다.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동반되다는 점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자극한다. 환 손실을 막으려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빌린 돈(엔화) 상환에 나설 수 있어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엔과 유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99.41로 지난 1월 2일(109.24)보다 9% 하락했다. 이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면서다. 반면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올해 초 158엔대에서 이달 1일 155.46엔대로 수그러졌다. 한때 달러당 155.4엔을 찍기도 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다카이치 내각이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결정하자 한때 달러당 157엔을 넘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청산 규모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은 ‘엔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 변화와 청산 가능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엔 캐리 자금 잔액을 506조6000억엔(약 4768조원)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 중 6.5%인 32조7000억엔(약 308조원)을 청산이 가능한 규모로 파악했다. 스테

이트 스트리트 마켓의 매크로 전략 책임자 마이클 메트칼프는 “일본 금리가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질수록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오거나 적어도 해외 채권 매수 규모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국제 발행이 급증하는 시기에 국제 금융의 핵심 공급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결정 이후 국제 금리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라며 “일본 국제 금리 급등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일본인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 금액은 22조8060억 원가량이다. 이들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많다. 김찬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미국 국제 보유 규모는 2025년 1~9월 1100억달러 늘었고 영국 등 우방국 중심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을 크게 앞지르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성장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중장기 머니무브가 가능하나 현시점에 이를 예단하긴 무리가 있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소비자물가 2.4% ↑… 고환율에 먹거리 ‘썰렁’ 연내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가닥

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농축수산물 가격 전년비 5.6% 뛰어
환율상승에 석유류 인하 축소도 요인

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 안팎으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10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5.6% 뛰어 지난해 6월(6.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이 모두 5% 이

상 올랐다. 쌀(18.6%), 현미(25.8%), 잡쌀(34.2%), 궤(26.5%), 사과(21.0%)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고등어(13.2%), 달걀(7.3%) 등도 가격 부담이 커졌다. 수입쇠고기(6.8%), 키위(12.0%), 망고(8.8%) 등 수입 농축수물은 환율 상승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공업제품은 2.3% 올랐고, 이 중 가공식품은 3.3% 상승했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5.9% 뛰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유(10.4%), 휘발유(5.3%) 모두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중후반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3.6% 올랐고,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안정적이었지만 개인서비스(3.0%) 상승률이 컸다. 외식(2.8%), 외식 제외 서비스(3.1%)가 모두 높은 흐름을 이어갔고,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4.4%), 외식 커피(4.4%) 등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관련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굵은 잣은 비로 출하 시기 지연, 달걀은 공급가격 상승, 고등어는 어획량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제’ 전격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경제·물가 장관회의
“식품 슈링크플레이션 뿌리뽑을것”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형 가격인상)’ 근절을 위해 외식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첫 적용 대상은 용량 논란이 잦은 치킨 업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에서 “식품 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다”며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 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 제도에 따라 치킨 메뉴판과 배달·온라인 주문 화면에는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래프(g) 또는 ‘호(크기)’ 단위로 적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적발시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회
정무위 강준현 “연내 법안 발의하게
10일까지 정부안 마련 강력하게 요구”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앞두고 여당이 연내 입법 의사를 재확인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12월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및 발행 요건 규율 ▲가상자산의 지위 정립 ▲가상자산 관련 공시 의무화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선진화’ 움직임에 발맞추고자 마련됐다.

또한 여당은 오는 3일에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일 정기국

회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조속한 법안 마련을 압박하는 한편,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 처리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발의된 ‘가상자산 선진화’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 간에도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

여·야 공감대에도 관련 입법이 미진했던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감독 권한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금융위의 감독 권한에 무게를 뒀지만,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엄격한 발행과 한국은행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은이 주장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 방안이 유력하다고 평가한다. 간편결제 및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한편, 높은 신용도를 갖춘 은행이 이를 담보해 높은 신용도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컨소시엄 허용 등 구체적으로 확정할 바 없다”라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당정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자는 방향으로 많이 정리됐다”라며 언급했던 만큼 업계에서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231@

대통령 바뀌고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 ‘격변의 대한민국’

尹, 내란 가담자들과 수사·재판중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작업 착수

민주당·야4당·시민단체 등 공동
오늘 내란·외환 종식 시민대행진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벌어진 사태였다.

이 같은 계엄은 수포로 끝났으며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간을 보냈다. 먼저, 대통령이 바뀌었다. 얼어붙은 내수,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어느 정도 해소된 모양새다. 외견상으로는 12·3 내란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전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그러나 아직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아직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부에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내란 임무 종사자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며, ‘내란 척결 및 극복’ 의지를 버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3일 국회 일대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진

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 시민단체인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 헌정수호 의지를 보여줬던 경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당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지시했으며, 시민들을 향해 국회의 계엄해제를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한 데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참석 취지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탄핵부터 조기대선, 정권교체까지… 시민이 이뤄낸 국가 정상화

12·3 계엄사태 그 후

현재, 지난 4월尹 파면결정 내려
6월3일 대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분기 GDP -0.2%→3분기 1.1%
李, 6개월간 정상국가 복귀 총력

12·3 내란 사태 발발 1년이 다가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는 1년간 숨가쁜 정치 일정을 보내야 했다. 수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계엄해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가 내란 사태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권 교체 이후 멈춰있던 행정부가 움직이며 정상 외교 복원 등 국정 정상화에 속도를 높였다. 모든 것은 한국 사회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덕에 이뤄질 수 있었다.

1년 전 12월 3일 밤 10시27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일인 지난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쳤다. 당시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민들을 향해 “국회로 모여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한밤중임에도 국회 앞으로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계엄군을 막아섰다. 한 시민은 장갑차를 몸으로 막으려고도 했다. 국회 관계자들과 보좌진들은 경내 집기를 가져와 바리케이드를 쌓거

나, 헬기 착륙을 저지하기 위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등 절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12월 4일 자정이 지나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장석에 착석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 0시48분을 기해 본회의가 열렸다. 곧바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상정됐고, 새벽 1시1분 가결됐다.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 지체없이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해야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3시간 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27분쯤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종료된 것이다.

국회는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일주일 전인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앞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에 두 번째 탄핵안은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그로부터 약 4개월 간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이 진행됐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정치권은 극한 대립을 거쳤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6월3일 대선을 거쳐 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6개월 간 정상국가 복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

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에 데뷔했는데, 이는 전세계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서였다. 이를 시작으로 유엔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해 한국의 정상화를 알렸다.

내란 이후 뒷걸음질 쳤던 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다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19%였으나, 2분기 0.675%로 반등한 후 3분기 1.166%로 올랐다. 내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내수 개선 등으로 2%대 성장도 예상하는 보고서도 나왔다. 코스피 지수도 4000선을 넘나드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예진 기자

‘강성 리더십’ 거대 양당… 대화·타협·양보 사라져

정치권, 저강도 혼란 지속

민주당, 의석수 기반 일방의사 진행
국민의힘, 국민 설득 없이 내부결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연말을 만끽하던 사회에 강도 높은 혼란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6·3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정치권은 진영에 따라 대척점에 서며 소통보다 갈등에 집중했다.

◆거대 양당에 등장한 ‘강성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거대 양당에 강성 리더십을 표방하는 지도부가 구성됐고 대화·타협·양보가 사라지며 사회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팬덤을 보유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았고, 임기 초 ‘야당 대표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국이 차갑게 얼어 붙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검찰·사법·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설치 여론전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윤 전 대통령 탄핵·21대 대선을 거치며 당 내 개혁보

다 내부 결집에 힘썼고, 한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이었던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잡았다. 장 대표는 자신의 공약대로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도 했다.

대선을 거치며 지지층이 우경화됐고, 극우세력까지 당에 가세한 국민의힘은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국회 상임위에서도 강성 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회의장은 연일 고성으로 열렸었다.

◆의석수 기반 독주 VS 반성 없는 외침
양당이 계엄 이후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자, 현실 정치에선 민주당이 의석수를 기반으로 일방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설득 없이 내부 결집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차례로 재발의했고, 의석수가 뒤지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쳤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시됐고 대부분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연이은 구설, 해병대원 순직사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정권의 실책이 겹치며 22대 총선에서 기록적인 대패를 기록했다. 계엄 이후 안철수·윤호숙·김용태 등을 내세우는 혁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저절할 반성과 강도 높은 혁신을 주장하긴 했으나, 당내 반대 여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계엄 이후 혁신 없는 당 운영을 이어온 결과, 당의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은 떨어졌고 ‘집토끼’들만 보고 정치를 하는 야당,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는 국회, 정부, 공공기관 인사, 벤처기업인, 30주년 기념사업 후원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AI·딥테크가 여는 '신성장 시대'... 산업 미래기술 대전환

벤처기업협, 30주년 기념식

1995년 12월2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30년전 이 날, 이 장소에선 대한민국 벤처사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다. 회원사 12곳을 포함해 총 150여개 기업이 모여 벤처기업협회 창립총회를 연 것이다. 초대 회장은 지금은 고인이 된 이민화 메디슨 대표가 맡았다. 고 이민화 회장은 대한민국 벤처의 '산증인'이자 '벤처 대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해 겨울 벤처협회가 탄생하면서 한국에서 '벤처'라는 단어가 대명사가 됐다.

2025년 12월2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30년전 벤처협회 탄생을 알렸던 섬유센터 건물과 테헤란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서 '대한민국 벤처 30주년 기념식'이 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벤처 30주년 기념식'에서 벤처기업협회 설립자이자 초대회장인 고 이민화 명예회장의 AI 복원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벤처'는 30년 동안 왕복 8차선인 테헤란로를 묵묵히 건너며 도전(Challenge), 혁신(Innovation), 변화(Change), 성장(Growth), 세계화(Globalization) 등을 우리나라 곳곳에 뿌리내리게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기업가정신'이 있었다.

송병준 벤처협회장은 "1995년 벤처라

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젊은 창업자들이 기술과 상상으로 불확실성을 돌파하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다"며 "벤처기업은 지난 30년간 위기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혁신 주체이자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라고 강조했다.

宋 회장 "벤처는 혁신의 동력"
故 이민화, AI 영상으로 메시지
"다음 세대에 길 이어달라" 당부

그러면서 "앞으로의 30년은 AI·딥테크·바이오·우주 등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AI는 산업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로, 제3의 벤처붐은 AI 기반의 새로운 벤처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협회는 30년 동안 초대 이민화 회장을 시작으로 장흥순·조현정·백종진·서승모·황철주·남민우·정준·안건준·강삼권·성상엽·송병준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서사를 써내려왔다.

협회 설립자이기도 한 이민화 명예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AI복원 영상을 통해 "기술은 인간을 위한 따뜻한 혁신이어야 하며 벤처정신은 도전과 개방의 DNA"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미래 30년의 성장 동력은 젊은 창업가들의 도전에서 나온다. 이 시대가 다시 벤처를 부르고 있다"면서 "혁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길을 이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기념식에선 학계에서 1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벤처 30주년 연구보고'도 발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구책임 맡은 기업가정신학회 창립초대회장인 서울시립대 이준우 교수는 "지난 30년간 벤처는 '벤처산업문화(1990~2010년)'에서 '벤처생태계문화(2010~2025년)'로 진화하며 변화혁신의 선봉장에서 국민생활의 체인저 역할을 해 왔다"면서 "향후 30년은 '벤처국민문화(2026~2055년)' 시대로, 벤처가 국가 사회경제문화의 생장점 역할을 하며 인류와 함께하는 '글로벌 K-벤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년 제1회 벤처주간'(11월26~12월2일)의 공식 폐막행사이기도 한 이날 기념식에는 회원사,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유관기관 등 약 100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벤처협회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벤처주간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념식 전야제에서 "대한민국 벤처의 지난 30년은 정답이 없는 길을 개척해 온 명예로운 역사였다"며 "앞으로의 30년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더 큰 승부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벤처인 여러분이 있다.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해 중기부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이날 벤처정책, 벤처금융, 창업활성화 등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 등 총 8개 분야, 153점의 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혁신·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도 선정했다.

2025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김동아, 김원이, 김태년, 김한규, 박정, 안도걸, 윤준병, 이재관, 장철민, 정진욱, 정태호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김소희, 박성민, 박수민, 배현진, 윤한홍, 이철규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학계, '벤처 30주년 연구보고' 발표
'생태계'서 '국민문화'로 전환 제안
1000명 참석해 30년 성과 공유
AI·딥테크 기반 제3 벤처붐 필요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결산년도 기준으로 '벤처천역기업'은 985개사로 '1000개 시대'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셀트리온, 크래프톤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토스, 쉐리, 버킷플레이스, 메가존, 무신사 등 유니콘 기업들도 두루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현재 총 35만6000명을 고용해 삼성(28만5000명), 현대차(20만4000명), LG(14만9000명), SK(10만8000명)를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청정의고장
청정고추의 고장
청정사과의 고장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재배 생산되는 영양청결고추

남영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명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올해의 벤처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728조 규모 예산안’ 與野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합의

李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감액 없어
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 줄이고
국자원 재해복구 등에 예산 증액

與 “민생회복 의지로 지켜낸 결과”
野 “기한 내 처리 위해 대승적 합의”

여야가 총지출 728조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5년 만이다.

여야는 2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마지막 회동을 갖고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확정했다.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



김병기(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연석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담에서 2026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했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했다. 여야는 10조원 규모의 AI 예산에 대해선 2064억원을 감액하고 대통령실 특별비는 정부안을 유지

하고 운영비를 대신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합의 처리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으로 경색된 정국에서 협치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

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양당 정치가 경색돼 온 과정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로 물꼬를 튼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국민

의힘으로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 간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관철된 것,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표현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모든 과표 구간 인상안과 금융·보험업 수익 1조 기업 교육세 1% 부과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한 선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세 인상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성장한 금융·보험업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수를 거둬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책 마련해야”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개인정보 보호 인식 완전히 바뀌어”
내란은 나치 전범처럼 형사처벌
정치 개입한 종교재단 해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과징금 등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12·3 내란 사태 1년을 앞두고 ‘나치 전범’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

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AI 등 신산업 육성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쿠팡 사태를 본보기로 해 향후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때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밝혀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는지, 사건조작을 해서 멸절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는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극복이 선행돼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내 설치된 ‘헌

법준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에 따른 공직사회 동료·불안감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미리 와서 인정하면(자수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에 부역하고 수행했는데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수행(附和隨行·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한 경우도 많을 테니,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감면 등으로 자진신고 유도)그걸 안 하면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총리께서도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

면 덮고 가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했는데, 발견돼서 형사적으로 넘기는 것은 법무부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해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언급하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통일교 사례를 들어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특검이 통일교·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정교분리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1조3000억·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과방위, 쿠팡 사태 긴급현안질의
매출액 최대 3% 과징금 부과
김범석 쿠팡의장 사과 요구도

쿠팡을 이용하는 약 3370만개 계정의 이름, 주소, 현관 비밀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선 쿠팡에 과징금 1조3000억원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 영업정지도 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에 책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T도 해킹 사고에서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돼서 과징금 1300억원을 부과받았다”며 “쿠팡은 3300만개가 유출됐고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 매출액은 41조원이고 과징금을 최대 1조2000억원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박 대표이사는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기본이고 이 정보만 있으면 범죄는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개보법 위반 맞지 않나.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3%다.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에 게도 “공정위에서 할 일이긴 한데, 영업정지도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검토 여부를 물었다. 류 제2차관은 “관계기관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대표이사가 아니라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표 이사는 김 의장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훈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으나 박 대표이사는 “한국법원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김 의장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 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이사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가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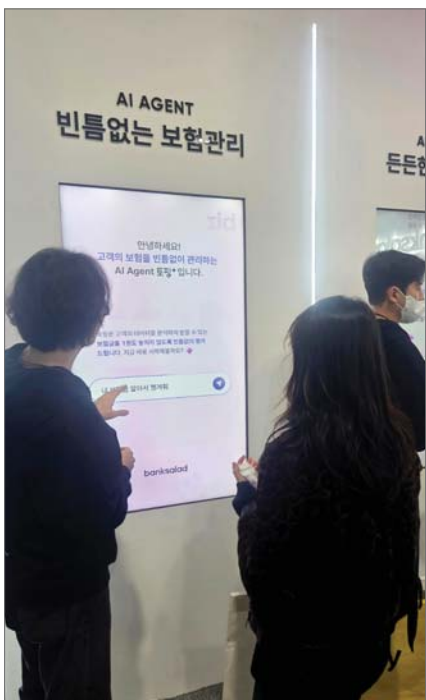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脫규제에 금융혁신 바람… 데이터 기반 개인화 경쟁 본격화

금융당국 탈규제 움직임으로
금융기관 고객 정보활용 가능
건강관리·상품 비교 추천 등
수준 높은 맞춤형 서비스 개발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이 실생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세대 디지털 금융이 송금 및 입출금,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금융업무에 국한됐다면, 2세대 디지털 금융은 각종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한 건강관리와 소비 최적화, 카드·보험 상품 제시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증권사·간편결제사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탈규제 움직임으로 고객 정보 활용이 보다 자유로워진 만큼 고객의 보유 상품 정보, 소비 데이터 등 금융정보를 활용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워크 2025'에서 관람객이 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의 서비스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뱅크샐러드는 고객의 놓친 보험금을 찾아주고 자영업자의 회계를 돕는 AI 비서 '토픽+'을 선보였다.

/안승진 기자

은행권에서는 가입한 금융상품을 일괄 분석해 더 나은 대출·예금으로의 갈

아타기 서비스가 보편화 됐고, 보험업권에서는 가입한 보험의 중복 약관을 분석하고 더 나은 상품이나 특약을 제시하는 상품 비교 서비스가 등장했다. 간편결제 업권에서는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더 나은 결제 방법과 건강정보를 제시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마이데이터 2.0'의 도입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한 규제 예외 허용 덕분이다.

지난 2022년 도입된 '마이데이터'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신용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도입 이전에는 핀테크사들이 고객 동의 하에 각각의 정보를 별도로 수집해 관리했다면,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에는 금융기관 간에도 고객 동의 하에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6월 '마이데이터 2.0'을 도입하고 각 금융사 앱에서 ▲전체 금융자산 조회 ▲본인정보 관리 강

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등 업무를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순히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한 데 모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금융앱으로 가입한 전체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마이데이터 2.0 도입 이후 각 금융사는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더 경쟁력 있는 대출·예금 상품을 제시하고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 간에 중복되는 약관을 분석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고객 정보 보호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망 분리'로 대표되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망 분리는 금융사의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망 분리는 금융권의 보안 수준을 끌어 올려지지만, 외부 기술 도입을 어렵게 했다. 특히 개발 비용 증가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류가 '자체 구축'에서 '구독형 서비스(SaaS)'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망 분리 제도는 금융권의 혁신을 제

약하는 족쇄가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샌드박스 규제'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지정된 내용에 한해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융사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 및 생성형 챗봇 활용을 일부 허용했다.

금융당국의 탈규제 움직임에 각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시 활용 가능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핀테크 업권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2.0 도입 이후 고객 정보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기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늘었다"면서 "금융당국의 탈규제 움직임에 따라 각 금융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는 자원이 늘어난 만큼 기존에는 제공이 어려웠던 각종 서비스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우리금융 차기회장 후보, 임종룡 등 4명 압축

임종룡 현 회장 연임 가능성 무계
'개인정보 보호' 외부후보는 비공개

우리금융 차기 회장이 임종룡 현 회장을 포함한 4명으로 압축됐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임종룡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 후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됐지만,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0월말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후보군을 대상으로 ▲내부 및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경영성과 ▲최고경영자 육성프로그램 결과 ▲리더십 등 평판조치 결과 등을 점검했다. 이어 이달 1일 롱리스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숏리스트 후보군을 확정했다.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4명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회장은 취임 이후 우리금융의 체질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금융은 타 금융지주 대비 은행 계열사(우리은행)의 매출 비중이 큰 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권을 종합증권사로 전환하고, 올해 5월에는 동양·ABL생명의 계열사 편입도 성사시키는 등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올해 초 은행장으로 취임한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중소기업금융에 강점을 갖췄다는 평가다. 정 은행장은 취임 이후 우리은행의 디지털전환에 힘쓰는 한편, 단기간에 외국인 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 역

량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우리금융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대전환' 전략에 동참하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핵심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동양생명·ABL생명의 합류 이후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체질 개선도 한창인 만큼 내부 인사 출신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서다. 특히 정진완 은행장이 올해 초 취임한 만큼 은행장 임기를 많이 남겨두고 있어, 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4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약 한 달여 간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프리젠테이션) ▲심층 면접 등 면밀한 검증 및 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안승진 기자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
LH-SH 서리풀 전담 보상팀 가동

앞으로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에 대한 보상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사업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사·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의 경우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걸렸다.

국토부는 내년 1월 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개정 특별법이 공포된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내 보상 현장조사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텔레그램·오픈톡방 불법 가상자산업 주의

신고가상자산사업자 27곳 공개
명단 미포함 사업자는 모두 불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통해 급증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2일 27개의 신고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불법 취급업자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교환 등을 알선하거나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업자를 블로그·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한 법안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

FIU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유형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된다면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이달 말까지 1400억 추가 공급 예정

IBK기업은행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모험자본 2.5조원을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약 3000개 기업에 ▲2023년 7641억원 ▲2024년 9865억원 ▲2025년 11월 누적 8096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했으며 이달 말까지 14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행이 2023년 이후 모험자본을 공급한 라온텍(디스플레이), 에이직랜드(반도체), 에이피알(화장품), 그래피(소재), 아우토코리아(보안), 지투지바이오(바이오) 등 34개 기업이 상장예정



IBK기업은행 전경.

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에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스마트폰용 OLED’로 위기 돌파… 글로벌 점유율 확대

디스플레이 업체, 고부가 제품 집중
OLED 패널, 노트북 등 적용처 확대

삼성D, 8.6세대 OLED 양산체제 구축
LGD, 탠덤 OLED 패널 기술력 강화
애플, 삼성D·LGD 의존도 높아져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TV 시장 둔화 국면에서 모바일·IT용 OLED를 성장축으로 삼아 위기 극복에 한창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매출 기준 점유율은 6.34%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각각 45%, 18.3%로 집계됐다.

양사는 기술 난도가 높은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며 매출을 크게 늘리는 모습이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다. 올 3분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3분기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은 1억대를 넘어서 전 분기 대비 8.3% 성장했다. 아이폰17 시리즈와 갤럭시S25 FE향 패널 공급이 급증하며 플렉시블 OLED 출하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LG디스플레이 역시 3분기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이 약 2000만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분기 1080만대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LG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패널을 애플에만 공급하고 있어 아이폰17 시리즈 출시가 출하량 증가의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LG디스플레이의 올 3분기 모바일 패널 매출액은 전체의 34.9%에 달하며 주요 제품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쓰이는 OLED패널이 태블릿 PC·노트북 등으로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중소형 OLED 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

는 분위기다. 디스플레이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오는 2028년 소형 OLED 패널 공급량은 11억4100만대, 수요량은 11억5600만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스마트폰용을 비롯한 IT용 OLED 시장 확대에 맞춰 신규 투자와 생산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 충남 아산에 8.6세대 OLED 양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라인은 주로 IT용 패널을 생산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태블릿용 탠덤 OLED패널 기술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탠덤OLED 기술은 레드·그린·블루(RGB) 유기발광층을 2개 층으로 쌓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OLED보다 밝고 수명이 길며 전력 소비를 줄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꼽힌다. 최근 애플이 주요 IT 라인업에 탠덤 OLED 적용을 확대하면서 관련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OLED 채택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출하량이 늘고

있으나 고부가 OLED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따른다.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는 올 3분기 1억 45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 패널을 출하하며 전 세계 공급 점유율 1위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애플이 고성능 OLED 기술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점이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애플은 디스플레이 업계에 저온다결정산화물(LTPO) OLED 기술 고도화를 요구해왔으나 BOE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애플의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가 꾸준히 늘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고부가 OLED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며 “저가 위주의 중국 업체들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기술 난도가 높은 프리미엄 OLED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고성능·고효율 신소재 분야 성과

전기차 구동모터에 친환경 소재 성과
업계최초 목재가공 바이오소재 적용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AI 활용 확대

현대모비스가 신소재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고성능·고효율의 신소재를 적용해 상품성을 높이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플라스틱 대신 신소재 필름·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전기차 구동모터에 적용해 출력을 높이는 등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2일 공개했다.

현대모비스의 신소재 연구개발은 ▲핵심부품 경쟁력에 기여하는 혁신소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재료개발 프로세스 구현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폴리테트라에테르케톤(PEEK)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혁신소재로 불리는 이 필름은 전기모터 내부에 촘촘히 감은 구리선(코일)을 감싸 비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나 발열을 차단한다. 또 18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도 확보했다.

전기전도성이 높은 나노물질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을 적용한 전자파 차단 흡수재 개발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전장부품의 고주파·고집적화·고전력화 트렌드에 따라 미래 유망 소재인 맥신을 자동차부품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현대모비스가 공을 들이는 분야다.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소재 사용을 법제화함에 따

라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 신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목재를 가공한 ‘디그노 셀룰로스’라는 바이오 소재를 업계 최초로 적용할 방침이다. 목재를 분쇄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특정 성분을 추출, 이후 다른 재료와 혼합해 범퍼커버와 같은 플라스틱 부품이나 고무제품을 만들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의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면 재료의 내구성이나 강도, 변형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그 일환으로 전기가 통하는 고무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이 통합 전력 솔루션 개발 보고회 후 (왼쪽부터)유인정 효성중공업 상무, 권기영 효성중공업 전무, 임익순 대한전선 상무, 홍동석 대한전선 상무, 강지원 대한전선 고문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선

효성중공업-대한전선, 전력설비 통합 진단

케이블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 솔루션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이 변전소 내 주요 전력 설비와 케이블 진단을 하나로 묶은 ‘케이블 예방진단 및 자산관리 통합 솔루션’을 개발했다.효성중공업의 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 ‘AR MOUR+’와 대한전선의 실시간 케이블 진단·모니터링 시스템 ‘PDCMS’를 결합한 솔루션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4년 11월 체결된 ‘전력분야 기술 협력 및 신사업 모델 발굴 MOU’의 첫 결과물로, 양사는 전략

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을 융합해 글로벌 전력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양사가 개발한 통합 솔루션은 기존에 케이블과 전력설비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진단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도록 만든 것으로, 변전소 전체 설비를 아우르는 통합 진단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변전소 단위 전력 시스템 전체의 상태를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설비 교체·투자 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승용 기자

KAI, 본체개발 주관 ‘다목적실용위성 7호’ 발사 성공

조립시험 분야에도 참여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본체를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베가(VEGA)-C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다고 2일 밝혔다.

KAI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다목적실용위성 7호 위성본체 개발 계약을 통해 본체개발 주관뿐만 아니라 시스템 공동설계 및 위성체 조립시험 분야에도 참여하며 다목적 7호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다목적실용위성 7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의 정밀관측 역량이 한층 강화되며 한국과 주요 관심지역에 대한 정밀 영상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KAI가 본체개발을 주관한 다목적 실용위성 7호. /KAI

초고해상도 전자광학(EO) 카메라를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 7호는 0.3미터(m)급 고정밀 영상 촬영이 가능해 국토·환경·재난·도시계획·과학연구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고품질 영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지난주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발사에 성공한다. 다목적실용위성 7호 본체 개발을 통해 증명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본체개발 역량과 위성체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민간 주도 위성개발 시대를 앞당길 예정이다.

KAI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우주사업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의 중대형급 위성개발 기술 축적을 주도적으로 수행했고 정지궤도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및 군정찰위성 등 다양한 위성 개발 사업에 참여해 풍부한 개발 및 제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KAI는 지난해 7월 소형부터 대형 위성까지 동시 시험이 가능한 4톤(t)급 대형 열진공 챔버 시설을 민간 최초로 구축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화시스템, 국내 최대 위성제조 거점 완공

‘제주우주센터’ 준공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제조 인프라인 ‘제주우주센터’를 준공하며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 거점을 확보했다. 민간 주도의 위성 생산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국내 우주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화시스템은 2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정부 연구기관·군·협력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

다고 밝혔다. 축구장 4개 규모의 약 3만㎡ 부지에 연면적 1만1400㎡로 조성된 센터는 위성 개발·조립, 성능 시험, 통합 시험장 클린룸, 통제실·시험장 제어실, 사무공간 등 위성 연구·개발부터 제조까지 전 공정을 통합한 첨단 생산 허브다.

센터에서는 내년부터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이 생산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열진공(Thermal Vacuum) 시험, 근접전계(Near-Field Range) 시험 등 우주환경을 모사해 성능을 검증하는 핵심 설비가 갖춰졌으며, 향후 자동화 조립·제작 설비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국내 타이어 3사, 유럽 경쟁 본격화 금호, 폴란드 생산기지로 시장 공략

금호타이어, 오폴레 공장부지 확정
2028년 가동... 연 600만 본 첫 단계
유럽 매출확대 위한 현지전략 강화
고성능·고인치 중심 포트폴리오 개편

한국, 헝가리 공장 기반 점유율 확대
넥센, 체코공장 통해 현지 공급 강화

금호타이어가 유럽에서 신규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와 유럽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폴란드 오폴레(Opole) 지역을 유럽 공장의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건설될 금호타이어의 유럽 신공장은 투자 승인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8월 첫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생산 규모는 연간 600만 본으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 투자금액은 5억 8700만 달러(한화 약 8606억원)이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공장 건설을 위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입지 조건, 판매 확대 가능성, 투자 안정성, 수익성, 인센티브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최종 2개 후보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물류·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물류창고.

력·인프라 등 폴란드 정부가 제시한 경쟁력과 유럽 내 공급 안정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오폴레가 최적의 지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은 전 세계 타이어 소비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금호타이어에게 전략적 비중이 매우 크다.

실제로 지난해 금호타이어 전체 매출 중 유럽 매출 비중은 약 26.6%에 달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유럽 공장 설립을 통해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 성장의 발판을 확보하고, 고성능·고인치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HVP)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유럽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점유율 확대에 집

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헝가리에 넥센타이어는 체코에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유럽 시장은 국내 타이어업체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올해 3분기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전체 매출의 41%가 유럽에서 이뤄졌으며 한국타이어도 유럽 비중이 44%에 이른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27년 말까지 연간 530만 본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합평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폴란드 신공장 부지 확정으로 금호타이어는 한국·유럽·북미를 잇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수요에 최적화된 현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보, KST와 기술기업 M&A 지원 강화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촉진

기술보증기금이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와 ‘기술지주회사의 M&A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한 우수 기술기업의 M&A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보의 민관협력 M&A 플랫폼(M&A 플랫폼)과 KST의 기술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M&A 전 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8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출자해 2013년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로, 2025년 11월 기준 총 178개 출자회사에 700억원을 투자하며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KST는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기보의 M&A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M&A 수요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에 M&A 거래정보망을 통한 전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M&A 보증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 구조는 회수단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지난 3월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내에 M&A 거래정보망을 신설해 M&A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부터 중개, 금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수소 트랙터 상용화 검증

현대차·울산시와 실증 업무협약

CJ대한통운이 현대자동차, 울산광역시와 손잡고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수소 트랙터 트럭을 실제 물류 노선에 투입해 화물을 운송하고 운영 안정성과 경제성 등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CJ대한통운은 2일 울산시, 현대차, 현대글로벌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수소전기트랙터 실증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최갑주 CJ대한통운 더운반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차량 생산·공급부터 운송 운영, 행정·인프라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묶은 ‘패키지 협력 모델’을 구축해 수소전기 트랙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

트랙터 트럭을 울산항을 비롯한 울산 내 주요 물류 거점과 지역 간 장거리 운행 노선에 실제 투입해 일 운행거리, 연비, 충전 효율, 운행 안정성 등 핵심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수소 트랙터의 실증 성과를 축적하고, 향후 최적 운행 모델과 운영 기준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나아가 친환경 물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수소 화물차의 ‘생산-운송-활용’ 전 주기 생태계를 울산에 정착시켜 수소 기반 물류·모빌리티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갑주 더운반그룹장은 “울산시와 현대차 등 참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소 트랙터 트럭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운송 모델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여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파산과
개인회생과

NEW START 상담센터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지원방안

자산·채무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자산·채무 증빙 서류제출(소상공인) 금융·법률전문가	신청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법원신청서류의 면밀한 검토·보완 법률전문가	신청 및 완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법원에 패스트트랙으로 접수·신청컨설팅 등을 통한 회생파산 완주 및 재기 지원 법률전문가	행정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파산관재인비용,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라픽/ 정민주 기자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중기부·수원회생법원 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 MOU 이어 두번째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 확대 검토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과 파산 정리 등을 위한 제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 MOU에 이어 두번째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업무협약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돼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

이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기도 했다.

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칭을 진행했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됐다.

현재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이다.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

생·파산 행정 지원을 받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노용석 1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시몬스, 연말 맞아 ‘엔드 오브 이어’ 프로모션

뷰티레스트 등 가격 할인 혜택

시몬스가 연말 시즌을 맞아 올 한 해 보내주신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엔드 오브 이어(End Of Year) 프로모션’을 펼친다.

2일 시몬스침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은 크리스마스 및 새해를 앞두고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와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가격 할인 혜택 외에 푸짐한 사은품도 마련했다. 500만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개와 룸 스프레이, 800만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개와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룸 스프레이

등을 선물한다.

‘뷰티레스트 블랙’ 구매 시에는 올 시즌 구스 듀벳과 디퓨저 등을 증정한다. 모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증정하며 조기 소진될 수 있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국내 제조·생산 최초로 포스코산 경강선에 ‘바나듐(VANADIUM)’ 소재를 적용한 ‘바나듐 포켓스프링’을 통해 침대의 핵심인 내구성을 월등히 향상했다.

특히 난연 매트리스는 실제 전체가 폭발적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를 방지해 재실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소방관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한다.

/김승호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김여진 표혜미 | 엄승윤 류하륜 김상민 최윤재 | 지강혁 엄정욱 한재우 김도경 | 현지수 한혜란 이정원 김정은 | 임영식 강동철 공민규 김한길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교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5년간 개인정보 1.5억건 유출 기술발전 못 따라간 보안체계

전화번호에서 생체정보까지
정보 유출, 고위험군으로 확산
스미싱·피싱 2차 피해 가능성

데이터 활용 폭증 속 관리 부재
정부 “징벌적 배상 작동 안 해”

“집 비밀번호, 택배 공동현관 코드, 심지어 개인통관번호까지…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용 데이터죠.”

올해 연달아 터진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한국 사회가 사실상 ‘개인정보 무방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5년간 확인된 국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억1924만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사와 처분이 끝난 사례만 반영한 수치다. 아직 최종 조사가 남아 있는 롯데카드 297만건, KT 2만건, 그리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 3370만여건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1억5593만건으로 치솟는다.

올 10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가 약 5114만명임을 고려하면, 국민 개개인이 최소 3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셈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된 구조다.

◆올해만 7516만건… 전년 대비 13배 폭증

올해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심각한 해로 기록된다. 2024년 전체 유출 규모는 7516만여건으로, 전년 593만건의 13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올해 통계는 사고가 아니라 붕괴”라는 말까지 나온다.

SK텔레콤에 이어 쿠팡까지 대형 플랫폼 기반 사업자가 연달아 사고를 내면서 전체 통계가 ‘기형적 급증’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도 더 민감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화번호·이메일이 흔했지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쿠팡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시스

만 최근엔 배송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생체정보, 개인통관 부호 등 고위험군 정보가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보 범위가 넓어질수록 2차 피해인 스미싱·보이스피싱·계정탈취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기술 발전 속도 못 쫓아간 관리체계”… 기업·정부·개인 모두 취약

전문가들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구조적 취약성’을 첫 번째로 꼽는다.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 활용이 폭증하는 속도에 비해 보안관리 체계는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점검 주기를 늘리고, 기업은 직군별 접근권한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I·클라우드·자동화 시스템이 확산하면서, 관리 부실 한 번으로 대규모 정보가 한꺼번에 새 나갈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차원의 보안 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 교수는 “비밀번호 재사용, 이중인증 미설정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유출이 상시화된 환경에서는 개인도 보안 습관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사자 토큰 방지…기본 중의 기본도 안 지키 기업들

올해 사고가 특히 비판받는 이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원인 자체가 너무 기초적이기 때문’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쿠팡 사고의 원인을 “퇴사한 직원이 사용하던 인증관리자의 액세스토큰을 방치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내부에서 기본적인 권한 회수·폐기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다른 기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도 ‘강경 모드’ 전환… “징벌적 손해 사실상 무용지물”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쿠팡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대규모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기업 책임이 명확한 경우,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적용 사례가 극히 적어 ‘종이 호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보 유출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익시오 가입자 100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LGU+, AI 대화 검색 체험횟수 확대
베스킨라빈스 바라이어터팩 증정도

LG유플러스가 AI 통화앱 ‘익시오(i xi-O)’ 가입자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익시오 핵심 기능인 ‘AI 대화 검색’과 ‘AI 스마트 요약’ 무료 체험 횟수를 100회로 확대하고, 인증 참여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베스킨라빈스 바라이어터팩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기능 사용 시 표시되는 사용 횟수 화면을 캡처해 인증하면 된다.

‘AI 대화 검색’은 지난 통화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물어보면 약속 장

소·일정 등 핵심 정보를 AI가 찾아주는 기능이다. 대화 의도를 반영해 정리해주는 만큼 실무·일상 모두 활용도가 높다.

‘AI 스마트 요약’은 통화 내용을 6가지 양식으로 구조화해 요약한다. 메모·할 일·문의 등 기본 형태는 물론 부동산 중개나 영업 활동 등 업무용 양식도 지원한다. 요약본은 바로 수정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익시오는 ▲AI 대화 검색 ▲AI 스마트 요약 ▲보이스피싱 탐지 ▲악성앱 탐지 ▲안티답보이스 등 AI 기반 통화 보안·편의 기능을 탑재한 LG유플러스의 대표 AI 통화앱이다. /김서현 기자

엔씨 ‘아이온2’, 게임 오브 지스타 선정

서비스 이틀 만에 DAU 150만 돌파

간사가 자리했다.

엔씨소프트가 신작 MMORPG ‘아이온2’로 2025년 ‘게임 오브 지스타’를 차지했다. ‘게임 오브 지스타’는 한국게임 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매년 지스타 출판작 중 가장 완성도 높은 게임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일 판교 R&D 센터에서 트로피 수여식을 열고 수상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남준 아이온2 개발PD, 소인섭 아이온2 사업실장, 이택수 한국게임미디어협회 회장, 임영택 한국게임기자클럽

‘게임 오브 지스타’는 게임성, 그래픽, 스토리 등 전반적인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한국게임기자클럽 소속 전문 기자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한다. 2018년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는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2를 지난달 19일 한국과 대만에 동시 출시했다. 아이온2는 서비스 이틀 만에 DAU 150만을 돌파하고, 일주일 후 누적 캐릭터 생성 수 253만 건을 넘기며 2025년 출시작 중 가장 빠른 흥행세를 기록했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2로 올해 MMORPG 시장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KT와 경찰청이 RCS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KT

해킹 사태發 올해 번호이동 11년 만에 ‘최다’

번호이동 누적 건수는 728만건
작년 같은기간 보다 26.2% 급증

올해 통신사를 갈아탄 국민이 700만 명을 돌파하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경쟁 활성화 정책이 무색할 만큼 잠잠하던 통신 시장이 예상을 깨고 폭발적인 유동성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역대급 대이동’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대형 해킹 사태가 촉발한 ‘공포와 보상’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휴대폰 번호이동 누적 건수는 728만38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나 급증한 수치다.

번호이동 건수가 70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7년(701만 건) 이후 8년 만이며, 전체 규모로는 ‘통신 대란’이 일상이었던 2014년(865만 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5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그리며 굳어버렸던 시장이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요동친 셈이다.

올해 시장이 이토록 뜨거웠던 결정적 원인은 SKT의 유심 해킹 사태였다. 통상 월 50만 건 수준에 머물던 번호이동 수치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나 90만 건을 돌파했다. 5월에는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가입자들이 경쟁사로 대거 이탈하며 ‘꽤나 무브’가 일어났고, 7월에는 해킹 피해 보상 차원에서 위약금이 전액 면제되자 기다렸다는 듯 통신사를 갈아타는 수요가 폭증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이 틈을 타 마케팅

팅비를 2조원 가까이 쏟아부으며 가입자 쟁탈전에 불을 지핀 것도 한몫했다.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업계는 이를 ‘일시적 착시’로 보고 있다. 해킹 이슈가 사그라지자 시장은 즉각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지난달(11월) 번호이동 건수는 약 55만 건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전환지원금’ 제도나 ‘단통법 폐지’ 이슈는 해킹 사태가 만든 비정상적인 파도에 묻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사들이 2분기에 쏟아부은 마케팅비는 고객 유치라기보다 방어 비용 성격이 짙다”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실질적인 트리거 없이는 당분간 50만 건 박스권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사이버 도박 등 청소년 범죄 경각심 높인다

KT-경찰청 RCS 활용 예방활동
카드뉴스 형태로 담아 순차 발송

KT가 경찰청과 함께 2일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사진·영상·파일·고화질 전송, 그룹 채팅, 읽음 확인, 입력 중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KT와 경찰청은 지난달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3일부터는 사이버 도박, 전동킥보드·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 관련 안내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RCS는 기존 문자와 달리 카드형 정보제공이 가능해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KT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날 시기를 고려해 3일 사이버 도박 관련 메시지를 발송한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도박 징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체크포인트를 카드뉴스 형태로 담았다.

KT는 자체 빅데이터 분석과 RCS 기술을 활용해 초·중·고생과 학부모를 연령대·가구 형태 등으로 세분화해 전국 20만 명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소년의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등을 고려해 교통안전 관련 메시지도 연내 추가 발송한다. 일상 속 부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와 교통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김서현 기자

떠났던 外人 돌아오나… 연말 증시 ‘산타’ 기대감 솔솔

11월 외국인 대규모 매도 이어져
이달 들어 1.5조 가까이 순매수
코스피 4000선 앞두고 반등세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지속
연말 ‘산타렐리’ 기대·경제 교차

“국장은 역시 단타라는 걸 다시 한 번
빠져리게 느낍니다. 배당이고 실적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산타는 미국 들렀다가 한국 주
식시장으로 오시나요.”

12월에 들어서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
이에서는 올해도 ‘산타 렐리’가 나타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위
기는 좋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은 이
달 들어 2거래일 동안 1조5000억원 가
까 이 사들였다. 1470원대를 넘나들던 환율
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구글의 ‘제미니 3.0 프로’ 공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가시화되면서 인
공지능(AI) 거품 논란이 다소 잦아드
는 모양새다. 이런 요인이 맞물리며 투
자자들 사이에선 “12월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변수는
환율과 일본의 금리인상이 될 것으로
본다.

◆코스피 4000노크, 산타렐리 기대감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중심 코스피 하락으로 손실을 본 개인(개인 투자자)들이 ‘산타 렐리’를 기대하는 모습.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환 위
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7
개 연도의 12월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16번(59%) 상승했다. 이
기간 12월 평균 지수 상승률은 2.2%
였다.

특히 강세장을 보였던 해의 12월 수익
률은 통계적으로 훨씬 두드러진다. 1998
년 이후 코스피가 연간 기준으로 20% 이
상 상승한 해는 총 10번이었는데, 이 중
8번에서 12월이 추가 상승했다. 강세장

해만 따로 평균을 내면 12월 상승률은
6.9%대로, 평년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올해는 11월까지 코스피가 63.6%, 코스
닥 지수는 34.6% 올랐다.

12월 시작 이틀째인 2일, 코스피가
4000선(종가 3994.93)을 노크하기 시작
하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 역시 10
만3400원까지 치솟자 개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산타렐리’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타렐리란, 12월 25일 성탄절 전후로

해서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
는 현상을 말한다. 계절적인 효과인 셈
인데, 성탄절을 계기로 소비가 늘고 내
수가 호조를 보이면 관련 기업 매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투자 유인인 한국경제에도 청
신호가 켜졌다.

미국발 관세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수출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
어 ‘역대 최고’ 실적을 향해 달려가며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7000억달러
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출액은 역대 11월
중 최대치인 61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슈퍼 사이
클’을 맞은 반도체와 전통적 효자 품목
인 자동차가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
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투자은행(IB)들
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를 찍
고 내년에는 1.9%로 반등할 것으로 내
다본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코스피 상
장기업의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할 것
으로 관측한다. KB증권은 내년도 코스
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 늘어난 4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
망했다.

◆한국증시 여전히 싸고, AI기대감 커
증권가는 12월 산타렐리를 외국인

끌것으로 본다. 김재승 현대차증권은
“코스피의 상승 탄력성이 둔화된 이유
중 하나는 이번 강세장을 이끌던 외국인
순매수가 11월 들어 빠르게 순매도로 전
환됐기 때문이다”며 “12월 이후엔 외국
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점차 순매수에 나
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
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의 변동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저평가 매력도 여전하다. 코스피가
올해 11월까지 63.64%올랐지만, 전문
가들은 “여전히 싸다”고 강조한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4
배 수준이다. 일본(1.7배), 대만(3.8배),
아시아 평균(2.2배)은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 평균(3.5배)보다
낮다.

다만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은 연말 렐리를 보이거나 차익실현
시기가 아니라 1월 실적 시즌을 기다리
며 박스권을 보이는 단계”라며 “반도체,
전기장비, 조선은 신규 수주와 주당순이
익(EPS) 향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실적발표와 성장 추세를 확인한 이후 주
가수익비율(PER) 재확대 가능성이 높
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퇴직연금 평가 2년 연속 ‘우수’ 신한투자증권, ‘MTS 간편모드’ 선보여

업권별 1위, 디폴트옵션·AI지원 호평
장기투자 지원 강화로 경쟁력 입증

NH투자증권이 고용노동부 주관의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
일 밝혔다.

올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는 증
권·은행·보험 등 41개사를 대상으로 퇴
직연금 운용 상품, 수익률, 조직·서비
스, 수수료 효율성 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NH투자증권은 종합
평가 상위 10% 내에 들어 2년 연속 퇴직
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새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뉴시스

롭게 도입된 업권별 우수 사업자 평가에
서도 1위에 올랐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을 위
해 연명대별 특성에 맞춘 디폴트옵션 상
품 체계를 도입하고, 적립식 ETF(상장
지수펀드) 투자와 AI(인공지능) 로보어
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등 장기 투자를
적극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경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
부문 부사장은 “NH투자증권은 책임감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고객의 수익
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 경쟁력과 차별화된 서비
스로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가
겠다”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증권

‘CD금리 플러스 ETN’ 상장

단기 자금 운용 대안 부상

미래에셋증권은 양도성예금증서(C
D)금리 91일물+0.1%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 CD금리 플러스 상장지
수증권(ETN)’을 신규 상장한다고 2일
밝혔다. ‘미래에셋 CD금리 플러스 ET
N’는 상장일 이후에 일반주식처럼 매매
할 수 있다.

해당 ETN은 단기 자금 시장의 대표
금리인 ‘CD91일물 금리’를 목표 수익률
(YTM)으로 하는 상품이다. 원금에 더해
CD금리만큼의 이자수익을 얻는 구조
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한투증권, 클리프위터와 해외 대체투자 협력

해외 사모·대체투자 상품 확대
접근성 높여 글로벌 역량 강화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대체투자 전
문 운용사인 클리프위터와 전략적 제휴
를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제휴로 상품 개
발과 판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
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사모 자산 상품에 대한 고
객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클리프위터는 미국 사모 대출 및 사모
주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체
투자 전문 자문사 및 운용사로, 자문 자
산을 포함해 총 127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50억 달러는 초고액 자
산가용 대체투자 상품인 인터벌 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클리
프위터 지주사(CW Parent)의 지분 4.
29%를 2723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주식 취득의 목적을 “지분투자를
통한 Capital Gain(자본 이득) 취득 등”
이라고 알렸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
십은 클리프위터의 경쟁력을 활용하면
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대체투자
설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주요 화면 글자 20% 확대 등 개선

신한투자증권이 고령자와 초보 투자
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준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
스템(MTS) 내에 ‘간편모드’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능은 금
융 당국의 고령자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
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고객도 MTS를 보다 쉽고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간편모드는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심종목, 현재가, 주
문, 잔고, 이체 화면에 우선 적용됐다. M
TS홈 화면에서 한번의 설정만으로 간편
모드를 손쉽게 켜거나 끌 수 있어, 사용
상황에 따라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UI·UX(사용자환경
·경험) 설계 단계부터 가독성과 정보 이
해도 향상에 집중했다. 기존 화면 대비
글씨 크기를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USD’, ‘JPY’와 같은 영어 기반 금융 표
기를 ‘미국 달러’, ‘일본 엔’ 등 한글로 표
기해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거래 과정에서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
화했다.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주문 화면은 ‘간편 주문’ 기능을 별도로
구성해 필수 정보만 보기 쉽게 재배치하
고 입력단계를 줄였다. 절차가 복잡한
이체 업무는 진행 단계와 남은 절차를 시
각적으로 표시해 혼란을 줄였으며,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MY홈 화면에 ‘사고신
고 바로가기’ 메뉴를 배치해 이상 거래
의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일련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본
부장은 “이번 간편모드는 단순 UI 변경
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금융 플랫
폼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서비스”라며
“출시 이후 고객 반응과 제안을 기반으
로 적용 화면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하나증권, 초고액자산가 전담센터 오픈

강남서 통합 프리미엄 자산관리

참여했다.

하나증권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프리미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증권 THE 센터필드 W’를 신규 오픈했
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열린 개점 기념행사에는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대현 W
M그룹장, 박준희 THE 센터필드 W 센
터장과 임직원, 주요 손님 등 30여명이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는 국
내외 주식투자부터 채권, 글로벌 투자
자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취급하며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세일즈
엔트레이딩(S&T) 각 부문 역량을 집중
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고액자산가 전담 센터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내년 세계경제 3.0% 성장할 것 아시아지역 4.5%→4.1% 둔화”

KIEP·IMF, 2026 세계경제 전망
韓, 올해 0.9%→내년 1.8% 반등

“내년, 성장률 추가 하락 없이
‘완충된 둔화’ 단계로 진입해”

2026년 세계경제가 전면적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국가별·산업별 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는 ‘비대칭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지정학·기술경쟁 등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투자, 통상 협력, 재정정책 조율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2025년 0.9%의 저성장에 머물렀으나, 2026년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를 주제로 제15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장벽 강화, 주요 지역 갈등 고조 등 역풍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공급망 전략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AI·디지털 기술 투자 증가가 충격을 흡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완충 기제(Buffering

mechanism)’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별 회복 속도와 충격 대응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2026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 제조기업의 가격·마진 흡수,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이 무역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완충된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미국과 주요국 간 신(新)관세 경쟁 심화 ▲재정 여력 축소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 약화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투자 쏠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관세 체제가 고착될 경우 “국가 간 무역구조의 회복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카이 안도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 성장률이 2025년 4.5%에서 2026년 4.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긴축 환경과 지정학 갈등, 무역 장벽 강화가 아시아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5년 0.9%에서 2026년 1.8%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

카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경제는 수출 호조와 기술(반도체) 경기 상승, 정책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항후 무역 긴장 심화, 사회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긴축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카코 바바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심층적 무역협정(Deeper Trade Agreements)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편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장기적 성장 동력과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국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남석 KIEP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심층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외 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축산물 가격 5.4% ↑… 이달 수급 안정화

농식품부, 소비자물가 완화 방안
전년비 상승, 전월비는 4.5% 하락
비축물량 활용·축산물 할인 등 나서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5.4% 상승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공급 여건이 개선돼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활용, 축산물 할인 행사,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 ‘용량 쏠림’ 근절 등 유통·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전년 대비 5.4%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4% 하락했다. 세부 품목별로 농산물은 전년 대비 5.4% 올랐으나 전월 대비 4.5% 하락했고, 축산물은 전년 대비 5.3% 상승·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쌀과 과일 가격은 올해 수확 지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컸으나, 10월 이후 수확량 증가로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했다. 쌀 20kg 소매가격은 10월 상승 6만7704원에서 11월 하순 6만2441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확



2일 서울 소재 대형 유통매장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표될 수요 전망을 반영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벼 매입 기간도 기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산지 유통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지만, 사과·감귤은 동절기 수요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농식품부는 12월부터 전년 수준의 물량이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은 한우와 돼지고기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으나, 9월 이후 공급 확대에 따라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계란은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12월부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는 산지가격 인하 유도과 제과·제빵용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연장을 통해 수요 분산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고환율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2.8% 올랐으나 상승폭은 완화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민병주 KIAT 원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13회 산업기술정책포럼 기념 촬영사진을 찍고 있다.

/KIAT

“피지컬 AI 핵심 인터페이스는 음성”

KIAT, 온디바이스 AI·음성 AI 포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에서 ‘생성형 AI의 또 다른 진화, 온디바이스 AI와 음성 AI’를 주제로 제13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며, 피지컬(행동형) AI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의 본격 확산 속에서 온디바이스 AI와 음성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

에 민감한 데이터 처리 시 보안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지연 없이 실시간 분석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음성 AI는 사용자와 기기 간 소통에서 가장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양대 장준혁 교수는 “온디바이스 AI는 로봇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피지컬 AI 기반 기술이며, 피지컬 AI를 작동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는 음성이 될 것”이라며 “음성 AI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통합형 음성 언어 모델(SLM)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음성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화자의 감정과 의도까지 담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표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신청 서두르세요”

기후부, 신청액 2057억 81% 소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액이 11월 30일 기준 2057억 원을 돌파해, 예산 2539억 원의 81%가 소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8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1701억 원, 133만 5000건의 환급이 완료된 상태.

환급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으

면 4~5일 내 가능하며, 평균 2주가 소요된다. 기후부는 심사인력을 확충해 환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환급사업은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추석 연휴로 신청이 다소 줄었지만, 최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혼수·김장철을 계기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양광석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사업 시행 이후 주요 가전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하는 등 내수 회복과 에너지 절약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히 시행한 사업인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행정하다 송사 휘말린 공무원에 비용지원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전담팀 운영

산업통상부가 적극 행정을 하다 송사에 휘말린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회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또 적

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전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한정) 지원 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GEL PEN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전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韓 농업 미래 선도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접목
핵심자원 보유 최적의 조건 갖춰
나주, 장흥, 순천·곡성 3대 축 삼아

전남도가 지·산·학·연 협력의 글로벌 대표 모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식품소재, 천연물, 미생물 3대 핵심 분야가 선정돼 농업을 기술집약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은 지난 1월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기존 단위사업 중심이 아닌 지방 자율 전략 설계 방식으로 전환해 이뤄졌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축산물과 미생물, 천연물 같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IT)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 2000억 달러에서 2031년 3조 9천억 달러로 3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연평균 7% 가깝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



전남도청.

/전남도

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소재·천연물·미생물 등 핵심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지 면적(전국의 18.2%), 농업 생산량(19.0%), 친환경인증 면적(50.3%), 아열대작물(59.0%)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풍부하고 다변화된 생물 자원과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혁신적 연구개발 역량을 인정받았다.

속면효과가 뛰어난 흑하랑 상추로

만든 건강차, 눈 피로 개선에 좋은 차즈기 제품, 유자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장품 원료 등이 대표적(우수) 사례다.

전남도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토대로 전남형 그린바이오 혁신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나주는 식품소재, 장흥은 천연물, 순천·곡성은 미생물을 3대 축으로 삼아 그린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육성지구 지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인센티브 혜택이 집중된다. 바이오 파운드리, 소재 산업화시설 등 국비 인

프라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지구 입주기업은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식품기능성 평가 등 사업에서 가점을 받고,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수출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농가는 표준화된 스마트팜과 계약재배 확대로 안정적인 원료공급망을 구축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하고, 기업 역시 안정적 원료수급망 확보와 체계적 통합정보시스템(공공형 CDMO)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신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글로벌 그린바이오산업의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망기업 지원 등 그린바이오 생태계의 핵심동력이 될 2026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231억원)을 받아 국비(균특)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전국규모 유소년 승마대회

순천시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풍덕수변공원 특설 경기장에서 ‘제1회 순천시장배 팔마 유소년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천시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승마대회로 시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수변공원에서 열려 승마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기 종목은 장애물, 권승, 거북이 달린다, 릴레이 등 총 5개 종목 8개 경기로 현재 참가자 모집 중에 있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중학생까지로 학생승마사업 참여 학생 등 관내 유소년에게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난이도를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전남)=양희성 기자 ysteven@

김해시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

김해시가 산림청의 ‘2025년 녹색도시 우수 사례 공모’에서 도시숲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버려진 철도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바꾼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영역사공원, 폐철도 도시숲, 하모니숲, 맑은바람 생태길, 스마트그린 도시숲, 도시바람길숲을 차례로 완성했다. 전체 6km 구간 가운데 아직 미조성된 2.3km는 2026년까지 도시바람길숲 2·3단계로 개발해 녹지 네트워크를 완성할 방침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금융중심지 활성화 도모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
예탁원 등 총 14개 기관 참여
정책방향, 발전방안 등 논의

부산시는 2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리며,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금융 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해 총 14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부산금융중심지 주요정책 성과 및 향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해 참여기관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은 민선8기 들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부산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등 부산형 3대 혁신 모펀드 조성을 주도했다. 아울러 부산디지털자산거점소 설립 지원 등으로 자본과 인재, 기술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국제금융센터지수 역대 최고인 24위를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부산청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경,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센터 출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운영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창경)는 1일 부산창경에서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창업자의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윈스톱 지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전국 규모 행사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전국 17개 창경 대표이사,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17개 창경에서는 중앙과 화상으로 연결해 동시에 지역 자체 출범식을 진행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센터는 법무·세무·특허·노동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 직업계고 순취업률 38.4% ‘전국 1위’

경북교육청 취업통계 발표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경북 직업계고가 순취업률 38.4%(전국 평균 25.6%)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매년 4월 1일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6년 연속 전국 최고 순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31.6%(전국 평균 4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경북 직업계고가 ‘취업 중심 기능인 양성’이라는 교육 방향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온 결과로, 졸업 직후 산업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번 결과는 신산업·신기술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한 점, 10차 산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한 점, 경북형 도제사업을 통한 기업 맞춤형 취업 교육을 운영한 점,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으로 지자체 협력 모델을 구축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은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기능경기대회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현장 실무능력을 입증해 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양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공동건의문 전달

영양군은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 참석해, 남북9축 고속도로(영천~양구) 조기 건설을 요청하는 10개 시·군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소속 강원·경북 10개 시·군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협의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건의문을 바탕으로 ‘제5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국가 고속도로망 중장기 계획)’에 남북9축을 중

점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관통하는 국가 기간교통축이다.

강원·경북 10개 시·군은 2023년 7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창립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강원내륙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착수(‘23.7.)와 경북권(영천·청송·영양·봉화) 사전타당성 조사 추가 착수(‘23.10.) 등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함양군

280억 규모 지역상품권 발행

함양군은 올해 총 280억원 규모의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도 눈에 띄는 수준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군은 올해 상품권 구매 시 기본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할인율을 15%로 대폭 높였다. 여기에 5% 캐시백 행사까지 더해 역대급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포럼’ 열어

경북도는 지난 1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해양수산부, 국내 주요 크루즈 선사, 관계기관, 학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항 북극항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사)한국크루즈포럼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북극항로와 해운 그리고 크루즈’를 주제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현금흐름 한계’ 홈플러스, 가양·장림점 등 5곳 문 닫는다

김병주 “폐점보류” 공언 3개월
폐점보류 10곳 운영 여부는 미정

“대기업 납품업체, 외상거래 거부
현금결제 요구에 자금줄 말라”
해당점포 직원 100% 고용유지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 속 5개 점포 영업 중단 검토에 나선다. 지난 9월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회와 노조 앞에서 “인수합병(M&A) 성사 전까지 폐점을 보류하겠다”고 공언한 지 3개월 만이다. 최근 공개 매각 본입찰이 유찰되고 현금 흐름이 바닥을 드러내자 영업을 중단하는 고육지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폐점이 보류됐던 15개 점포 중 적자 규모가 큰 5개 점포에 대해 영업 중단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 점포는 가양점, 장림점, 일산점, 원천점, 울산북구점 등 5곳이다.

나머지 10개 점포는 운영 여부가 정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뉴시스

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향후 유동성이 허락된다면 다음 인수자가 점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겠지만, 인수 결정이 계속 지연된다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영업 종료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A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5개 점포 외 나머지 점포들도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홈플러스가 스스로 약속 반복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칼을 빼 든 이유는

좋지 못한 재무 상황 때문이다. 회사 측은 “매각 장기화로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급불능’이라는 단어가 지직 언급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대기업 납품업체들이 홈플러스의 부도 가능성을 우려해 외상 거래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안그래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들여오려면 현금을 바로 쥐야 하니 자금줄이 마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MBK가 그동안 말을 수차례 바꾸면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며 “모기업이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도 도와주는데, 손해를 피하기 위해 발을 빼는 모습만 보이니 매출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현재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부산·울산·경남 조합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포했다. 안수용 지부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손상희 수석부지부장, 최철한 사무국장)은 단식 24일차인 이날 1일부터 물과 소금마저 끊는 ‘아사 단식’을 시작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선량한 인수자를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된 것은 없다”며 “그사이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청산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회사는 직원 월급과 전기세조차 내기 힘들 만큼 망가졌다”고 성토했다.

인력 운용과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5개 점포 직원들은 100% 고용이 유지되며, 생활권 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거리 발령에 따른 퇴사 유도 우려를 일축하며 고용 안정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업계에선 홈플러스가 생존하기 위해 현재 덩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교수는 “120여 개 점포 중 적자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A급·B급 점포 60~70개 수준으로 ‘다운사이징(슬림화)’해야 한다”며 “덩치를 줄여 알짜 회사로 만들어야 매각도 가능하고 직원들의 고용도 지킬 수 있고 지금처럼 가면 공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MBK의 전략 수정과 구조조정 없이는 홈플러스의 회생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입찰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롯데마트, 딸기·한우 반값할인 ‘통큰세일’

4~7일 4일간 연말결산 프로모션
제철식품·먹거리·완구 등 초특가

롯데마트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연말 결산 프로모션 ‘통큰세일’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철 식품, 대용량 먹거리, 완구 등 전 카테고리에 걸쳐 초특가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 올해 첫 반값 딸기를 선보인다. 논산·완주 등에서 수확한 ‘통큰 딸기’를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된 7000원대에 선보인다. 또한 1+등급 한우 전 품목도 50% 할인한다. 대표적으로 등심은 7990원, 국거리·불고기는 349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인기 농산물과 수산물도 저렴하게 준비했다. 트리벨리과프리카와 팡이버섯은 990원에, 제스프리 골드키위와 체리는 9990원에 판매한다. 제철 대방어회



롯데마트가 통큰세일을 통해 제철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마트

는 2만원대에, 납해안 생굴은 2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대용량 상품으로는 ‘통큰 만능대패 오겹살’ (1.8kg)을 1만 9900원에, ‘통큰 요리하다 양념 소불고기’ (2kg)는 1만원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행사 첫날에

는 스페인산 ‘오늘좋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PB 신상품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홈파티 먹거리 사전예약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BBQ 플래터, 자이언트 폭립 등을 롯데마트 앱 ‘롯데마트 제타’에서 예약하면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토이저리스에서는 인기 완구를 최대 30% 할인한다.

롯데마트·슈퍼 강혜원 마케팅부장은 “이번 ‘통큰세일’은 올 한 해 동안 롯데마트를 사랑해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유통의 본질인 가격과 품질로 보답한다는 원칙 아래,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혜택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이베이재팬 ‘샘플마켓’서 K-제품 인기

4년여간 K-제품 비중 72% 달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재팬이 운영하는 ‘큐텐재팬(Qoo10.jp)’의 샘플마켓 서비스에서 한국 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이재팬은 2021년 5월 론칭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샘플마켓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록된 제품 3100여 개 중 K-제품 비중이 72% (2200여 개)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샘플마켓은 고객이 응모를 통해 제품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K-제품의 총 체험 건수는 43만 건, 리뷰 수는 28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체험

고객의 64%가 실제 리뷰를 남길 정도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샘플마켓에 등록된 전체 상품 수는 1458개로 전년 대비 3배 이상(220%) 증가했다. 이 중 K-제품은 1056개로 7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K-뷰티 셀러 신청은 171% 늘었으며, 최근 일본 내 수요가 높은 K-이너뷰티와 K-식품 셀러 신청도 각각 156%, 238% 급증했다.

역대 가장 많은 체험 신청을 기록한 제품 역시 K-제품이었다. ‘VT코스메틱 토너패드’가 48만 건 이상의 신청을 기록해 1위에 올랐으며, ‘더어, 클리어스 앰플’, ‘피치씨 아이새도우 팔레트’ 등이 뒤를 이었다.

/손종욱 기자

GS25, 에드워드 리 협업 도시락 선보여

‘폭립&갈비함박 도시락’ 등 순차 출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셰프 에드워드 리와 협업해 코리안-아메리칸 스타일 폭립&갈비함박 도시락을 이달 2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물가로 인해 저녁 식사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기획됐다. GS25 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감할인 서비스 매출 분석 결과, 저녁 시간대(17~19시) 비중이 59.7%로 점심 시간대(26.8%)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드워드 리 폭립&갈비함박 도시락은 인기 저녁 메뉴인 폭립과 갈비 함박을 메인으로 구성했다. 밥 위에는 에드워드 리 셰프의 특제 소고기 찜장을 얹어 감칠맛을 더했으며, 볶음김치, 어묵, 소세지 등 밑반찬을 곁들여 구성했다.

/손종욱 기자



GS25가 에드워드 리 셰프와 손잡고 코리안-아메리칸 스타일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인다.

/GS25

GS25는 이번 도시락을 시작으로 에드워드 리 셰프와 다양한 협업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2일에는 에드워드 리 피스타치오 컵케이크를 출시하며, 4일에는 에드워드 리 K-맥앤치즈와 에드워드 리 버번소스 돈독살뽕밥을 내놓는다. 이어 9일에는 에드워드 리 고추장 폴드포크 감밥을, 내년 1월에는 부추전 스낵을 출시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무신사, 용산에 메가스토어·스탠다드 오픈

아이파크몰 용산점에 1000여평 규모

큐레이션 콘셉트 200여개 브랜드 소개

무신사가 초대형 패션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를 새롭게 선보인다.

무신사는 오는 11월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무신사 메가스토어 용산과 무신사 스탠다드 아이파크몰 용산점을 동시에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장은 총 1000여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무신사 스토어와 무신사 스탠다드가 한 공간에 결합된 무신사 최초의 복합몰 형태다. 이는 현재까지 무신사가 선보인 매장 중 국내 최대 규모이며, 아이파크몰 용산

점 내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도 가장 크다.

무신사는 용산이 직장인, 가족 단위 방문객, 2030 세대,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고객층이 유입되는 도심형 상권이자 교통 요충지라는 점을 고려해 첫 메가스토어 출점지로 선정했다.

무신사 메가스토어 용산은 무신사 겔즈, 무신사 플레이어, 스니커즈 존 등 다양한 큐레이션 콘셉트를 통해 200여 개 브랜드를 소개한다. 함께 입점한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에서는 맨즈, 우먼즈, 키즈, 뷰티, 홈, 스포츠 등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매장 내 팝업존에서는 매달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오픈일인 1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는 인기 스포츠 유니폼을 주제로 한 팝업과 글로벌 브랜드 아디다스 팝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스토어의 혜택과 편의성을 오프라인에 접목한 O4O(Online for Offline) 서비스도 강화했다.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회원 할인, 재고 정보,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고객을 위한 4개 국어 서비스도 지원한다.

무신사는 오픈을 기념해 11일과 12일 양일간 입점 브랜드와 무신사 스탠다드 상품으로 구성된 메가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14일까지 나흘간 매일 선착순 고객에게 반값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손종욱 기자

HLB, 전략형 리더십으로 전환... 신약개발·글로벌 사업 속도

진양곤 회장,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신임 CEO에 김홍철 대표 내정

전략기획부문 확대·미래전략팀 신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허가 재추진
담관암·선낭암 등 파이프라인 확대

HLB그룹이 대대적인 리더십 재편에 나서며 '미래 성장 중심 CEO'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HLB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룹 이사회 의장으로 이동한다. 그룹 전체 지배구조 상단에서 전략 수립 및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총괄할 계획이다. 그룹 내 계열사 운영은 단독대표를 주축으로 의사결정과 책임을 일원화해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신약개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구조 개편이다.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2026년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향후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HLB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한다. 중장기 성장 로드맵 설계와 글로벌 전략 실행을 직접 견인하기 위한 결정이다.

진양곤 의장 직속 기구 '현장지원본부'도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기획인사부문을 '전략기획부문'으로 확대하고



진양곤 HLB그룹 이사회 의장.

/HLB그룹

산하에 '미래전략팀'을 신설한다. 특히 간암 신약, 담관암 신약 등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 상업화 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의지를 적극 반영했다.

HLB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신약개발'을 다각화하기 위한 경영 전략에 속도를 낸다.

새로운 HLB 대표에는 김홍철 HLB 이노베이션 대표가 내정됐다. 김홍철 대표는 지난 2023년부터 HLB이노베이션을 이끌었고 미국에서 CAR-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텍 '베리스모'를 자회사로 인수해 지원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R&D) 기반을 다졌다.

김 신임 HLB 대표는 HLB이노베이

션과 베리스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HLB 핵심 과제인 '리보세라닙과 캄펠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를 지속 추진한다.

HLB는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리보세라닙과 캄펠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을 도전해 왔다.

다만, 올해 3월 미국 FDA로부터 2차 서류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 해당 병용요법의 재도전은 불발됐다. 미국 FDA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병용으로 쓰이는 중국 항서제약의 캄펠리주맙에 대한 의약품 화학합성·공장생산·

품질관리(CMC)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펠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리보세라닙 승인도 자동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HLB는 후속 파이프라인도 담관암, 선낭암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담관암 신약 후보물질인 '리라푸그라티닙', 선낭암 치료제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2030년 다양한 항암제를 보유한 빅파마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HLB와 HLB사이언스의 합병안도 통과됐다. 항암제 임상개발 역량과 펩타이드 기반 초기 후보물질 발굴 능력을 결합해 탐색에서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신약개발 전 과정의 경쟁력을 높인다.

HLB이노베이션의 대표에는 윤종선 HLB사이언스 대표가 내정됐다. 또 김도연 HLB제넥스 대표는 자회사 HLB 뉴로토브의 대표로,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는 자회사 바이오스퀘어 대표로 내정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사업연계 및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HLB그룹 측은 "진양곤 의장의 미래 전략 리더십 아래 그룹의 방향성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계열사 간 협력은 물론 해외 사업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오딧세이’ 신년 한정판

붉은 말의 해 담은 리미티드 디자인

아모레퍼시픽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며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오딧세이'에서 신년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로맨틱'과 '블랙' 두 종류로 구성됐다. 오딧세이 로맨틱은 상쾌한 시트러스와 은은한 플로럴 향이 특징이다. 그린티와 캐모마일 성분은 거친 남성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딧세이 블랙은 목작한 스파이시 우디향이 매력적인 제품이다.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의 유효성분이 주름과 피부 톤 개선에 효과적이다.

아울러 말(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강화하면서도 붉은 말이 지닌 열정, 도전,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오딧세이만의 감각으로 담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026년 새 출발을 준비하는 남성들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또 1996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30년간 꾸준히 사랑받은 오딧세이의 30년 헤리티지를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어갈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골질환 치료제 2종' 유럽서 출시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엑스브릭
유럽 직접 전략으로 커머셜 역량 강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골질환 치료제 2종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을 12월과 2026년 1월에 순차적으로 직접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은 각각 글로벌 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다. 데노수맙 성분의 용량과 투약 주기에 따라 골다



오보덴스(왼쪽), 엑스브릭(오른쪽)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증 치료제(오보덴스)와 골거대세포종 등의 치료제(엑스브릭)로 구분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6년 유

럽에서 10년만에 총 10종의 제품을 상용화하게 됐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팔리'를 출시한 이후 면역학, 종양학, 안과학, 혈액학 등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법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판매 전략을 펼친다.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쌓은 커머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치료 분야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판매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을 출시하게 됐으며,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리바로하이 정’ 선보여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동시 관리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 정'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리바로하이 정은 국내 최초 피타바스타틴 3제 복합제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피타바스타틴,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발사르탄을 하나의 제형으로 처방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의 혈압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리바로하이 정 임상에서 리바로하이 정 투여군은 대조군(피타바스타틴+발사르탄, 발사르탄+암로디핀) 대비 LDL-C와 수축기 혈압이 완기 혈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리바로하이 정 투여 8주차에 LDL-C는 대조군 대비 38.3% 감소했다. 수축기 혈압은 22.1mmHg, 이완기 혈압은 9.8mmHg 낮아졌다.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워싱턴호텔에서 열린 리바로하이 정 출시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약효와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공유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순환기, 내분비대사 등 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진오 교수는 '리바로하이 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발표했다.

나 교수는 "리바로하이의 임상 결과는 다양한 환자군 대상 심부전, 심근경색 관련 예후 개선을 보여 폭넓은 치료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중남미 공립시장 공략 본격화

‘램시마SC’ 공식 판매 시작

셀트리온은 최근 칠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 판매를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매로 셀트리온은 중남미 공립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의약품 공급 채널이 공립시장과 사립시장이 8:2 비율로 형성돼 사실상 공립시장이 제품 판매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4월 칠레 공보보건청(ISP)에서 '램시마SC'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공보보험 등재를 목표로 칠레 정부와 지속 소통해 왔다. 램시마SC 임상 자료, 발표 논문 등 다수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 우수한 제품력을 알렸고 그 결과 올해 4월 칠레 공보함에 공식 등재됐다. 이후 약 7개월여 만에 칠레 공립시장에서 램시마SC가 선보여지게 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출시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지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램시마SC 출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칠레 염증성장질환(IBD) 학회에서는 램시마SC 공보보험 등재를 요구하는 학회장 명의의 등재 요청서한을 심의기관에 공식 제출했다. 또 현지 환우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램시마SC 등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씨콜드프리미엄정’ 리뉴얼

종합 감기약, 낮·밤 다른 성분 처방

대웅제약은 하루 생활 밀착형 종합감기약 '씨콜드프리미엄정'을 재단장했다고 2일 밝혔다.

씨콜드프리미엄정은 일반의약품으로 콧물, 코막힘, 기침, 인후통 등에 효능효과를 갖췄고, '활동, 수면, 회복' 주기에 따라 감기 증상을 완화해 준다. 낮과 밤에 맞춘 성분 배합으로 낮에는 졸리지 않고 밤에는 숙면을 돕는다.

주간용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을 제외하고 카페인 함유하지 않아 집중 유지와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야간용에는 디펜히

드라민을 포함해 밤새 기침을 가라앉혀주고, 콧물·재채기 증상을 줄여 편안한 숙면을 고려한다. 주간용은 주황색 알약에 CCD(씨콜드데이), 야간용은 파란색 알약에 CCN(씨콜드나이트)를 표기했다.

1회 1정 복용으로 복약 편의성도 높였다. 또 한 박스로 3일 이상 복용할 수 있어 기존 제품 대비 약 2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생활 패턴에 맞춘 감기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씨콜드프리미엄정은 주·야간 성분 설계, 비타민 함유, 복약 편의성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PEANUTS®



CHARLIE BROWN ORNAMENT
Sweet Pumpkin Filling



CHRISTMAS WREATH
Pistachio Cream



SANTA BELLY
Vin Chaud Filling



SNOOPY
Hazelnut Chocolate Spread



©2025 Krispy Kreme Doughnut Corporation
©2025 Peanuts Worldwide LLC | www.peanuts.com



광동제약, '주스명 도르밍' 5기 활동 진행

광동제약이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청년 환경정화 프로젝트 '주스명 도르밍' 5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내·외 청년 30명이 제주올레 길 걷기, 생태 탐방, 환경 정화 캠페인, 환경 전문가 멘토링 등에 동참했다.

/광동제약



BGF리테일,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 시상식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함께 제5회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수상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BGF리테일



KB국민은행-교통은행, 中 국가 결제망 연계 맞춘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및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11주년 컨퍼런스'에서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과 중국 국가 결제망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왼쪽부터)황위신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대표, 투홍 교통은행 업무총감, 송병철 KB국민은행 디지털영업그룹 부행장, 김동주 KB국민은행 국민지갑Unit(P) 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토스뱅크에 아제르바이잔 은행협회 대표단 방문

토스뱅크는 지난달 28일 아제르바이잔 은행협회 대표단 측이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 이후 보여온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고객 중심 설계와 기술 기반 리스크 관리, 금융소외계층 접근성 확대가 주요 경험으로 공유됐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왼쪽)가 자키르 누리예프 아제르바이잔 은행협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토스뱅크



BNK부산은행,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나서

BNK부산은행은 부산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왼쪽 네번째부터),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한화갤러리아 '육아동행지원금' 수혜 200가정 돌파

사내 출산가정에 1000만원 지원
유통·기계 부문 계열사 13곳 도입

한화갤러리아는 한화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에서 시행 중인 '육아동행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내 가구가 11월 기준 200가정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00가정을 넘어선지 불과 4개월 만에 수혜 직원 수가 배로 늘어났다.

한화 육아동행지원금은 사내 출산가정에 월수상관없이 1000만원(세후 기준)을 지원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은 신생아 수에 맞춰 지급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유통 서비스 부문과 기계 부문 소속 계열사 13곳이 도입했다. 당초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두 곳에서 한화비전, 아워홈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수혜 인원은 아워홈(60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43명), 한화세미텍(23명), 한화갤러리아(21명), 한화



한화갤러리아 정호진 과장(왼쪽)과 아내, 두 딸이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비전(18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화갤러리아 정호진 과장은 최근 둘째 딸이 태어나 카시트 구입 등에 육아동행지원금을 사용했다. 일부는 아이들 교육비로 쓸 계획이다. 첫째가 태어날 당시엔 없었던 육아동행지원금이 가져다 준 긍정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아워홈 창원영업팀 박경민 조리장은 올여름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한 번에 2000만원의 육아동행지원금을 받았다. 우선 아내 산후조리 비용 등

을 지출했고 남은 지원금은 아이들 생애 첫 통장에 넣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설악사업본부 최지연 과장도 10월 쌍둥이 아빠가 됐다. 사정상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육아 도우미 비용이 상당한 상황에서 육아동행지원금은 실질적인 힘이 됐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과 업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육아동행지원금을 수령한 100가구



아워홈 창원영업팀 박경민 조리장의 쌍둥이들이 쌍둥이 전용 유모차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는 '지원금이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육아동행지원금이 추가 출산 고려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냐'는 물음에도 응답자의 86%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한화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은 앞으로도 육아동행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직원 동행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전자 'SKS', 美 빌트인 가전시장 공략

‘찰스턴 푸드앤와인클래식’

가전브랜드 유일 후원사 참여

LG전자의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SKS'가 미국 미식 업계 전문가들과 접점을 넓히며 글로벌 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SKS가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찰스턴 푸드앤와인클래식'에 가전브랜드 중 유일한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찰스턴 푸드앤와인클래식’은 미국 전역의 셰프, 소믈리에 등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50회 이상의 요리 시연, 세미나, 패널 토론 등을 진행하는 미식 전문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SKS'는 별도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빌트인 가전 라인업을 선보이며 '요리에 진정성을 담는다'라는 브랜드 철학을 알렸다.

특히 ▲가스레인지, 인덕션, 수비드 기능을 모두 탑재한 '프로레인지'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분석해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기능을 탑재한 '빌트인 오븐' 등을 전시했으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열린 '찰스턴 푸드앤와인클래식'에서 'SKS'의 빌트인 가전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 시연을 진행 중인 모습.

/LG전자

이를 활용한 SKS 총괄 셰프 니치의 라이브 쿠킹쇼와 시식 행사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올해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SKS로 새단장하고,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키우고 있다.

'SKS 서울' 외에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상설 빌트인 가전 전시관을 운영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푸드앤와인클래식'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여 4000여 부스 방문객들에게 프리미엄 주방 가전 경험을 제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노사발전재단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

일터 어려움·도움 사례 공유

노사발전재단은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년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콘서트는 재단의 2025년 전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의 어려움을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

공하는 힐링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자이음센터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 계약 문제를 법적 다툼 없이 전문가 상담으로 사전에 조정한 사례, 계약상의 불이익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법적 상담 등 권리 보호 사례를 공유했다.

힐링콘서트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겨장의 음악, 겨장의 열정'을 주제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고, 문화심리학자 김정온 교수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세븐일레븐, 전자영수증 문화확산 기여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표창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지난 1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25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은 전자문서 관련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모바일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1만2000여 개 점포를 기반으로 전자영수증 이용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22년부터 탄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모바일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고도화한 공로를 인정 받아 표창을 받았다.

/세븐일레븐

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참여 기업으로 등록해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주관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 MOU에 편의점 업계 유일 파트너사로 참여해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인사

◆HLB그룹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홍철 ◇부사장 송진 ▲경영기획팀 김대웅 ◇상무부 승진 ▲바이오링크팀 이지환 ◇상무부 전보 ▲재무전략본부 이상우

부음

▲이춘광씨 별세,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 코치)씨 부친상, 대구 북구 호국로 898 대구시민전문장레식장 VIP 301호, 발인=4일 오전 6시30분. 053-324-4444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www.news1.com



뉴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시스와 손을 잡고 뉴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시스!

시장독점에 대항해 설립된 뉴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ic Camera와 Yodobashi Camera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도쿄에 가서 전철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주요 역 근처에 붉은색 큰 글씨로 적혀있는 ‘Bic Camera(ビックカメラ)’, ‘Yodobashi Camera(ヨドバシカメラ)’라는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두 곳 모두 이름에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 카메라 전문 판매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곳을 찾아가 보면 카메라 판매점치고는 규모가 너무 큰 것에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전철역 바로 옆에 아주 큰 건물을 전체로 매장으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몇 개의 건물을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층별 안내도를 확인해 보면 카메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 백화점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이 두 회사의 이름에 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된다.

최근에 여행을 다니면서 카메라를 따로 챙겨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사

진 촬영에 진심인 사람들은 값비싼 장비를 챙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은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수동 카메라가 필요했고 당시 도쿄의 요도바시(淀橋) 지역(현재의 신주쿠 주변)에서 카메라와 렌즈, 필름을 판매하는 카메라 판매점이 문을 열었다. 그것이 바로 Yodobashi Camera의 시작이었다. 1960년대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며 카메라와 오디오와 같은 고가 장비의 수요가 급증했고, Yodobashi Camera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전문점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정착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일본 경제 호황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세계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들에게 필수품이 있었는데 바로 ‘카메라’다.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카메라는 아니더라도 사용하기 편리한 카메라가 필요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도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면서 캐논, 니콘, 미놀타 등의 기업이 성장했고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기도 했다. 1970년대 후

반, 이케부쿠로에서 대규모 카메라 할인 매장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Bic Camera의 시작이다. 카메라를 할인 판매하는 커다란 매장이라는 뜻이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함께 카메라, 오디오 등 고가의 장비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해외여행 또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즉, 카메라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Bic Camera와 Yodobashi Camera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우선 카메라 중심의 판매 제품 범위를 PC, 게임기, 가전,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즉, 카메라 전문점에서 종합 가전 판매점으로 진화한 것이다. 게다가 대량 판매 시스템 구축으로 회전율을 높여 판매 가격을 낮춤으로써 극도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객 유입과 매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종합 백화점 형태로 변모했지만, 두 회사가 ‘카메라’라는 이름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한 상호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카메라 ‘전문점’에서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성을 이어가기 위함일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인재들이 떠나는 韓 자본시장



김 지 수 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한국의 자본시장이 필요로 하는 건 ‘사람(人)’이다. 시장을 활성화시킬 투자자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을 받쳐 줄 인재도 절실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형편없는 기관장”이라고 칭했다.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으로 고발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권력 기관으로 비쳐지는 금융감독원 내에는 소위 ‘열정페이’(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를 받고 야근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조직의 현실을 두고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장임금 대비 보수 수준이 70%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금감원 인력의 급여 체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조직 매력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호소다.

자본시장의 인재 유출은 금감원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운용역의 워라밸은 민간 운용역 대비 보수, 복지, 조직 구조 등에서 모두 메리트가 부족하다”며 “일하기 힘든 구조인 만큼 운용역 이탈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약 15%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얻었지만, 운용력들은 더 잘해야 하는 부담만 남아 있다. 국민연금이 당장 성과를 냈다고 해서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금 규모도 이제

14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운용역 강화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인력의 ‘엑소더스(대탈출)’ 막고자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 중이다.

민간 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올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250조원까지 불어났지만, 투자자들의 파트너인 운용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ETF의 독식 구조가 액티브 펀드의 활성화를 위축시켰고, 운용역이 역량을 발휘할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목소리로 존재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니즈를 끌어온 것은 분명 잘한 일이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운용 인력에 요구되는 스킬셋이 바뀌고 있을 뿐이고, 이제는 시장 구조 역시 그 변화에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3일 (음 10월 1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인(仁)이 없는 발산개세(拔山蓋世)는 허세일 뿐. 48년생 아버지 살아실제 생기를 다하여라. 60년생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72년생 빨리 가려다가 사고 수이니 운전을 양보하는 것이. 84년생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37년생 그동안의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 49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만회하기 어렵다. 61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기쁘다. 73년생 작은 일이라도 가버이 보지 마라. 85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큰 이익을 얻게 되는데.

38년생 뱀떠와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50년생 어려울 때 귀인이 서쪽에서 온다. 62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펄 난감하다. 74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없다. 86년생 지갑이 두툼해지면 마음도 든든해지게 된다.

39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51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 63년생 말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 75년생 대인관계도 중요하니 경조사도 신경을 써야 할 듯. 87년생 작은 성과라도 있으니 다행.

40년생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 52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64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76년생 이것저것 생각에 휘둘려 기회를 손실하니. 88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41년생 숨은 기술실력을 발휘하여 남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53년생 문서의 매매가 길하다. 65년생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77년생 음주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89년생 주변 사람의 협조로 해결책.

42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54년생 몸은 고달파도 재물은 들어온다. 66년생 욕심이 과하면 언젠가 내 것을 잃게 되는데. 78년생 흔한 성씨 김 씨 중에 귀인을 찾는다. 90년생 주위를 배려해야 이익이 더 크다.

43년생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55년생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이 자연법칙 아니겠는가. 67년생 동료와의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 79년생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저녁을 한다. 91년생 오후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

44년생 시간이 해결하니 여유 있게 관망. 56년생 과민한 반응은 관계를 그칠 수 있다. 68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이익이 있다. 80년생 분주한 가운데 승진과 발전의 기회가 다시 온다. 92년생 성공이 가장 좋은 성공의 비결이니.

45년생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다. 57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는다. 69년생 좀 더 일찍 일어나라. 81년생 영업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생긴다. 93년생 행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다.

46년생 늦게 나타나는 성과로 마음이 졸인다. 58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자. 70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행운이 깃든다. 82년생 말도 차면 기우니 미리 준비를 해야. 94년생 금전 기대를 접으면 마음이 편하다.

47년생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 59년생 능력이 있을 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다. 71년생 결을 떠나는 사람은 잡지 마라. 83년생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마라. 95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하듯 복 받으려면?

김상회의四季 복을 바꾸는 삼재기도

사람의 일생이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런 인생은 없다.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런 시기를 흔히 삼재라고 부른다. 삼재란 불 불 바람으로 상징되는 세 가지 재앙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전통적 개념이다. 특별히 아홉 해마다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하여 그 시기를 맞으면 많은 이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올렸다. 삼재기도는 이렇게 운명의 흐름 속에서 재앙을 막아내고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다. 삼재기도는 재앙을 막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서원이 된다. 삼재기도의 핵심은 새 희망을 세우는 데 있다. 삼재를 재앙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태어날 기회로 보는 것이다.

삼재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환의 힘에 있다.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에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삼재기도는 흔들림을 멈추게 하고 혼란을 다스려 준다.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고 ‘삼재가 소멸되고 복이 깃들게 하소서’ 발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지가 단단해진다. 그렇게 두려움을 의지로 전환하기때문에 삼재기도를 올린다. 삼재의 기간은 불필요한 인연 잘못된 습관 묵은 업장을 정리하도록 강제하는 시련이기도 하다. 삼재기도로 참회하며 정진하는 사람은 이런 시련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겪지 않는다. 귀인의 인연을 열어주니 삼재의 시기에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고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된다. 삼재의 시기를 어둠의 시기로 여기지만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밝히면 새로운 빛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불빛은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려는 소망이자 두려움을 넘어서는 희망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0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0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하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5	1	6
1		9	
8		6	4
1		7	4
9			5
3		8	1
7		4	6
	9		2
8	3	2	1

2		5	7	4
		3	6	9
	9	2	6	
			6	7
	1		2	
8	9			
	7	5	3	
5		6	9	
3	8		4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6	2	8	9	8	7
2	7	8	9	6	1	8	9
9	8	8	7	9	1	6	2
1	2	9	9	6	8	7	2
8	9	2	9	1	7	8	6
7	6	8	2	8	2	9	9
6	7	1	8	2	9	2	8
8	8	9	6	7	2	2	1
2	9	2	1	8	9	8	7

1	9	6	7	2	2	9	8	8
2	8	2	6	8	9	7	1	9
9	7	8	9	1	8	2	2	6
9	8	7	2	9	1	2	6	8
8	6	2	8	9	7	1	2	9
2	9	1	2	8	6	9	8	7
8	1	9	8	7	2	6	9	2
6	2	9	2	8	8	7	1	
7	2	8	1	6	9	8	9	2

영어 4등급도 서울대 가나 수능 최상위권, 영어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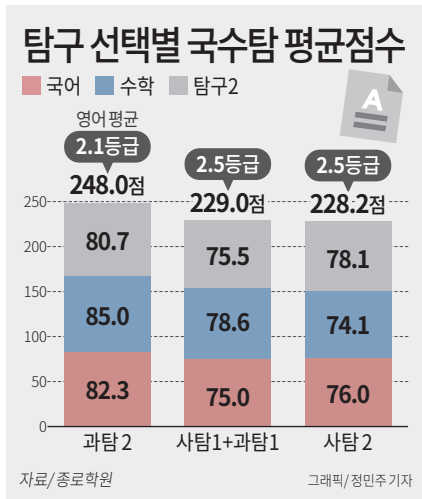
종로학원, 수능 가채점자료 분석
탐구선택 조합별 점수 차 ‘뚜렷’
상위권, 영어성적 하락 두드러져
대학별 영어 비중, 성패 가를 것

2026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 상위권과 최상위권에서 영어 성적이 가장 낮게 형성되면서 대학별 영어 반영 비중이 정시 지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탐구 과목에서는 과탐 2과목 선택자 집단의 점수가 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수능 직후인 11월 13일 수험생 5170명을 대상으로 한 가채점 자료에 따르면, 탐구 선택 조합별 점수 차는 뚜렷했다. 국·수·탐(2과목) 원점수 합산 300점 기준으로 ▲과탐 2과목 선택자 평균 248.0점 ▲사탐1·과탐1 선택자 229.0점 ▲사탐 2과목 선택자 228.2점으로 집계됐다.

영어 성적도 과탐 2과목 선택 집단이 평균 2.1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정시 지원 계열 역시 선택 조합별 차



이가 컸다. 과탐 2과목 선택자의 89.7%는 자연계 지원 의사를 밝혔고, 사탐 2과목 선택자는 78.9%가 인문계열 지원을 희망했다. 사탐1·과탐1 선택자의 72.1%는 자연계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서는 영어 성적 하락이 두드러졌다. 국·수·탐 원점수 합산 250점대 이상 구간에서 영어는 네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최상위권인 290점 이상 구간에서도 영어 평균은 93.4점으로

▲국어(97.7점) ▲수학(98.4점) ▲탐구(96.9점)에 비해 낮았다. 중상위권(240점대)은 수학이 가장 낮았고, 200~220점대 중위권에서는 국어 성적이 가장 낮게 형성됐다.

종로학원은 영어 점수 분포가 올해 정시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영어 절대평가라도 비슷한 점수대 내에서는 대학별 영어 비중이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가운데 서울대의 영어 반영 비중이 가장 낮아, 성적표에서 국어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경우 영어 4~5등급 학생도 정시 합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가채점 결과는 상위권의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며 “수험생들은 성적표 발표 후 자신과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과 과목별 유풀리를 비교하고, 대학별 과목 가중치와 영어 반영 비중을 세밀하게 검토해 정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시각장애학생도 점자교재로 태권도 배운다

서울교육청, 점자교재·오디오북 보급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태권도 점자교재와 오디오북을 개발해 전국 시각장애학교에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노원구 한빛맹학교에서 국기원, 한국점자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학생 태권도 점자교재 및 오디오북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그림·영상 중심 교재로 인해 태권도 수업 참여가 어려웠던 시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발굴해 추진한 전국 첫 사례다.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외에 시각장애학생용 태권도 교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용 점자교재와 오디오북을 자체 제작했다. 태권도 품새 ‘태극 1장’ 점자교본(45쪽)과 방송인 이동우 씨가 참여한 오디오북(14분)은 이미 전국 15개 시각장애학교에 배포됐다. 점자교본은 이동·동작·호흡을 촉각 언어로 재구성했고, 오디오북은 반복

청취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돕도록 구성했다.

업무협약에는 ▲태극 2~8장 점자교재·오디오북 공동 개발 ▲국기원 검수 및 교재 인증체계 구축 ▲영문판 제작 및 해외 보급 ▲전국 점자도서관·복지관 배포 확대 ▲국기원 사법단의 시각장애학교 방문 수업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단순 교재 제작을 넘어 시각장애학생 체육교육 모델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점자교본 제작, 오디오북 개발, 현장 수업 지원, 전국·해외 확산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포용적 체육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시각장애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몸으로 배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태권도를 매개로 한 포용교육 모델이 국제사회에도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을 운영해 한빛맹학교 학생들의 태극 1장 연습을 지원했다.

/이현진 기자

곤돌라·360도 전망대… 남산, 세계명소로

서울시, ‘남산 활성화 계획’ 발표
명동역~남산 정상 ‘5분 곤돌라’ 도입
사방이 포토존 ‘360도 전망대’ 조성

서울의 심장이자 생태 도심의 상징 ‘남산’이 더 즐겁고 푸르게 다시 태어난다. 오는 2027년, 명동역~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오를 수 있는 곤돌라가 생기고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 전망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시는 남산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환경 회복, 4개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내 ‘더 좋은 남산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주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 명동서 남산방향 보행환경 개선

먼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를 도입한다. 10인승 캐빈 25대 운영으로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 그간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모차 이용객도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

남산 주변부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보행을 방해하는 지장물 철거, 보도 확



남산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장, 도로 공간 재편 등을 통해 걸어서 편리하게 남산에 접근할 수 있게끔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해방촌·경리단길에는 웰컴가든을 만들어 ‘찾아가기 쉬운 남산’을 만든다.

남산 내부는 올해 개장한 하늘숲길, 북측숲길을 포함한 1.9km 구간을 연결해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한다. 또한 구간마다 다른 남산의 매력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둘레길 및 생태·역사·관광 등 5대 테마숲길도 정비한다.

◆ 정정부 포토존 ‘360° 전망대’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360° 전망대를 새로 조성한다. 기존의 광장 상부는 전망대, 하부는 워터로 조성하고 야간 조명과 미디어월이 설치된 순환형 둘레길로 낮과 밤 언제라도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남산의 색다른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주요 조망거점 8곳도 ▲체류형 ▲활영형 ▲생태형 등 방문객이 용도에 맞게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한다. 자연 그대로 청량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매력가든과 친수공간도 남산 곳곳에 조성한다.

올 한 해 세계를 흔들었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안내체계도 개선한다.

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 데크, 돌계단 등 노후 인프라 단계적 정비에 들어간다. 올해 러너용 샤워실, 정원예식장 등 이용객 맞춤형 편의시설 일부를 설치 및 개선을 완료했으며 화장실 환경 개선 등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로봇 산업 혁신, 기업 투자유치 탄력

인천광역시 1일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용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선 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핵심 사업인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10월 발표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의 전략 중 하나로, 2030년까지 로봇산업 3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로봇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 입주와 500㎡ 이상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졌다. 또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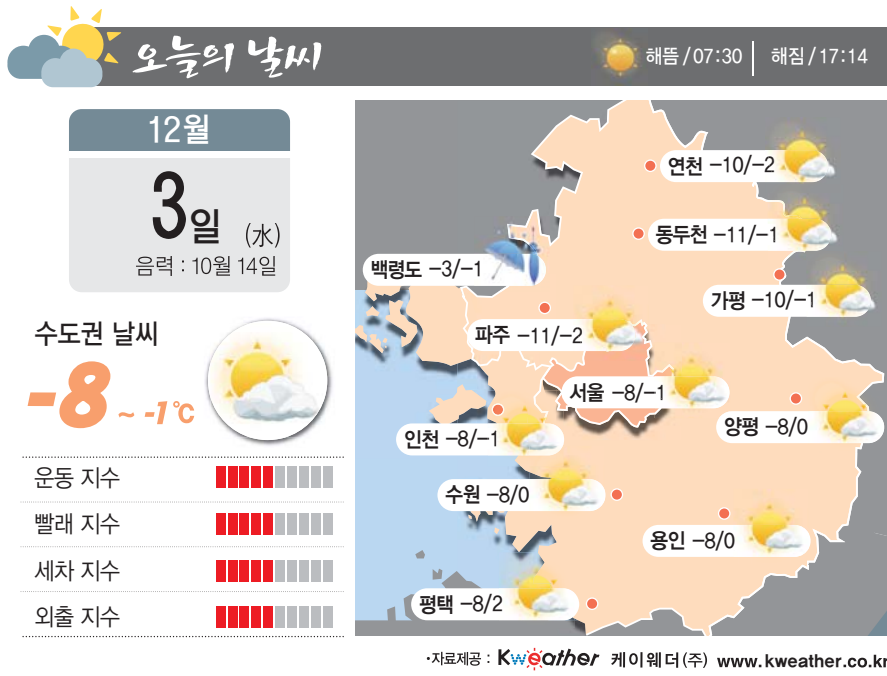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26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해 산·학·

연·관 협력 기반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투자설명회(IR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대비 약 40~50% 저렴한 공급가격은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 테마파크,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 완료 시 400여 개 로봇기업과 실증·연구기관이 집적되며, 수도권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와 실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구축돼 R·D·생산·실증·체험·사업화 전 단계가 하나의 공간에서 가능해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계기로 로봇산업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중·일 갈등 속 센카쿠서 마찰…中해경 “불법 진입 이어선 퇴거”
▲스티머 英 총리 “中, 국가 안보 위협이지만 관계 구축 중요”
/사진 뉴시스

▲美 특사 방러 속 중·러 외무장관, 2일 모스크바서 회동
▲트럼프,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통화…“시리아와 대화 계속해야”

▲미국, G20 의장국 임기 시작…“경제 성장에 집중”
▲美 국토안보부 장관 “여행금지 조치 확대해야”…트럼프에 보고



홈플러스
가양·장림점 등
5곳 문 닫는다
L1

metro®

Life

HLB
전략형 리더십
전환
L2



“ECM 기반 화장품 탄생… 최종목표는 오가노이드 고도화”

〈세포외기질〉

속깊은 인터뷰

조승우 세라트젠 대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오가노이드(Organoid)가 화장품으로 탄생했다. 국내 오가노이드 배양소재 전문 기업, 세라트젠(cellArtgen)이 개발한 세포외기질(ECM) 함유 화장품 ‘셀루메(Cellume)’다. ECM은 오가노이드를 배양할 때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을 채워주는 물질이다. 흔히 알려진 콜라겐이 대표적인 예다.

오랜 기간 바이오 소재로서의 ECM을 연구해 온 조승우 세라트젠 대표는 이 물질을 피부에 직접 투입하면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ECM을 함유한 최초의 화장품, Cellume가 탄생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셀루메는 출시하자마자 홈쇼핑에서 전 회매진 행진을 이어가며 불과 반년만에 수십억 매출을 올리고 있다.

조승우 대표는 “세라트젠은 바이오 소재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셀루메 역시 오랜 기간 다져온 연구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에스테틱 분야에서의 수익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 개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라트젠은 오가노이드 배양에 필요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첨단 재생의료 기술 기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탈세포 원천 기술을 활용해 장기나 조직에서 세포를 제거해 ECM만을 남긴다. 각 장기의 조직 특이적인 ECM을 활용하면 장기별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 현재 간장, 폐, 뇌, 심장, 췌장, 식도 등 10종 이상의 장기 오가노이드 배양소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ECM의 역할은 뭔가.

“모든 장기는 세포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세포 사이 공간을 채워주고 조직의 구조적 유지를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하다. 오가노이드를 만들 때도 세포를 둘러싸고 3차원 조직을 만들어주는 매트릭스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ECM이 한다. 세라트젠은 이 ECM을 통해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질환 모델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 Regenix는 어떤건가.

“지금까지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연구자나 기업들은 마우스(쥐)의 암(癌) 조직에서 추출한 ECM 매트릭스를 오가노이드 배양소재로 사용해 왔다. 이 매트릭스로도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지긴 하지만 암 조직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독성 우려로 임상 허가가 안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그동안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상 조직 유래 오가노이드 배양 매트릭스, Regenix다. 임상이 가능한 것은 물론 오가노이드 배양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 EC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라트젠이 개발한 ‘ECM’서 착안해 피부 채우는 오가노이드 화장품 개발 마우스 암조직서 추출하던 ECM 대체 오가노이드 배양 성능으로 한계 극복

- 시장성은 어떤가.

“현재 미국 기업인 코닝이 독점 판매하는 마우스 암 조직 유래 매트릭스 소재가 1년에 수천억원 매출을 낸다. 오가노이드 개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향후 2~3년 내 조 단위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시약이 Regenix로 대체되고, 범용적인 소재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안착 후 막대한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연구자, 기업들이 기존 배양 소재에서 벗어나 Regenix를 사용하고, 적응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라트젠은 현재 간 오가노이드, 폐 오가노이드, 근육 오가노이드 등을 활용한 질환 모델 플랫폼, ORGANOSCREEN을 갖추고 국내외 제약사들에 약물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 보다는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초점을 맞췄다. 재생치료제 개발도 가시화 되는 추세다. 급성 간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최우선 목표다.

- 어떤 질환 모델을 갖추고 있다.

“ORGANOSCREEN은 지난해부터 간과 폐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특발성 폐섬유화증(IPF) 질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오가노이드 기반 섬유증 질환 모델 서비스는 세계에서 첫 사례다. 최근에는 근육 오가노이드를 구축해 근감소증 질환 모델도 론칭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주 고객으로, 협업 문의도 활발한 상태다.”

- 간 재생치료제 개발은 어떤가.

“현재 동물 실험을 진행 중이며, 2027년 임상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타깃은 급성 간 손상 환자다. 급성 간손상은 대체로 약물이나 알콜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망률이 매우 높다. 치료 방법은 간 이식 밖에 없는데 약물, 알콜 환자는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도 가장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우리는 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투여해 간 이식까지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의 세포를 추출해 배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성품(off-the-shelf) 형태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향후 간경화, 간암 등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다.”



조승우 세라트젠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라트젠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세라트젠은 ECM 기술을 기반으로 뷰티·메디컬 에스테틱 브랜드 ‘Cellume’를 출시하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론칭한 이후, 7월, 8월, 10월 홈쇼핑에서 3회 연속 전량 매진을 기록하며 소위 ‘대박’이 났다. 조승우 대표는 ECM을 함유한 화장품은 물론, 연고, 필러까지 에스테틱 라인을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화장품을 캐시카우(Cash Cow) 삼아 재생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다.

오가노이드 활용 대사질환모델 등 제공 대동물실험 진행… 2027년 임상 예상

에스테틱 분야, 시장반응·성과 빨라 캐시카우로 확보해 재생치료연구 집중 장기이식 대체 오가노이드 개발 ‘목표’

- Cellume를 론칭하게 된 계기는.

“ECM은 세포하고 상호작용을 잘해서 세포 성장, 증식 분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세포를 지지해 오가노이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물질은 피부에서도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ECM이 포함된 화장품은 Cellume가 최초다. 첫 제품은 앰플 형태로 개발했다.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홈쇼핑 업체에서 협업 제안이 갑자기 들어와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 올해 셀루메 매출만 25~30억원, 내년에는 60~70억을 기대하고 있다.”

- 에스테틱 사업은 계속 확장하나.

“Cellume는 앰플 후속으로 크림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피부 창상 치료를 위한 창상피복제(연고)를 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12월 중 판매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실 애초에 목표로 한 것은 피부에 ECM을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주사 제형 스킨부스터였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쥬란’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된

다. ECM은 피부 조직 구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 투여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아 2028년쯤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

“바이오 소재 ECM에 대한 기초연구를 오랜 기간 해 왔고, 관련 논문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물질이 화장품, 의료기기 등 미용 영역에서는 개발된 사례가 많지 않아 가시적 성과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다. 국내 병의원은 물론, 홍콩, 일본, 싱가포르 쪽에서도 연락이 온다. 국내에서 실적을 쌓아 내년부터는 수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는 성과가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에스테틱 분야는 시장 반응과 성과가 빠른 장점이 있다. 바이오텍 입장에서 이 분야를 캐시카우로 확보하면, 외부 투자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을 계속 갖고 가려 한다.”

- 상장 계획은.

“최근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R&D 인력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영입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주권사 선정은 아직 고민 중이다. 내년에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의 협업, Regenix의 판매, 재생치료제 개발, 의료기기 출시 등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테틱 분야의 매출이 뒷받침되고 성장 잠재력이 증명된다면 상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목표가 있다면.

“실제 장기 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오가노이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장기 이식은 아직 수요를 못채우고, 이식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는 여전히 많다. 처음 창업을 한 것도 우리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그 분들을 위한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어서였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도 결국 그 목표를 위해서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여자 핸드볼, 카자흐스탄 제압…세계선수권 결선리그행 /사진 뉴시스
▲수비 보완 다짐한 KT 안현민 “강백호 형 타구 기다릴게요”

▲한국 골프 전설 ‘탱크’ 최경주 이름 딴 골프장, 2027년 필리핀에 개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 ‘치아구 시우바 아들’ 이사구와 프로 계약

▲불타 사라진 태조어진, 디지털로 되찾다… 고궁 박물관 보존과학 20년
▲국립중앙도서관, 조선 후기 학자 홍지섭 ‘와운 응문견수기’ 국역본 발간